

월 간

\$ 다함께

2002년 8월 [15호]

부시의 제국

여중생 살인, 대북 압박, 국제형사재판소 거부, 이라크 침공 계획, 기업 사기...

미국의 이라크 전쟁
서해교전
북한 난민
미국 경제 위기
유럽 사회포럼



2002년 6월 스페인 세비야의 반자본주의 시위자들. 더 자세한 내용은 39쪽을 보시오.

체제는 너무 썩었다

체제는 철두철미 부패했다. 7월 9일에 검찰은 김대중의 둘째 아들 김홍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홍업은 국가정보원과 기업체들에게서 모두 47억 원을 받았다. 국정원은 김홍업에게 8천5백만 원의 '용돈'을 줬다. 현대 그룹과 삼성 그룹은 김홍업에게 21억 원을 줬다. 전 현대 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은 1998년 7월부터 2년 반 동안 16억 원을 건넸다. 삼성 그룹 구조조정본부는 1999년 2월에 5억 원을 김홍업에게 전달했다.

김홍업은 선출된 자가 아니다. 그는 단지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사람들은 생각할 수도 없는 권세를 누렸다. 권력 기관과 기업체들은 그런 그에게 잘 보여 출세와 특혜를 보장받기 위해 뇌물을 바쳤다.

보통 사람들에게 국정원은 무시무시한 권력 기관이다. 그 국정원의 책임자들이 대를 이어 김홍업에게 아첨했다. 과연 이런 기구가 평범한 사람들의 위에 군림하는 것을 계속 용인해야 하는가.

기업들은 구조조정에서 살아 남기 위해 최고 권력자 아들에게 로비를 폈다. 이것이 시장 개혁이다. 시장 개혁은 결국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를 '개혁'하기는커녕 더한층 강화했다.

재벌들이 김홍업에게 뇌물을 바치던 때는 IMF 경제 위기로 말미암아 국민의 대다수가 고통을 겪을 때였다. 당시 김대중은 국민에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강요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아버지의 권력을 내세워 재벌들에게서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 당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평범한 사람들은 지독한 배신감과 전답 수없는 억울함을 느끼고 있다.

그런데도 검찰은 "전달된 돈의 뚜렷한 대가성을 찾아내지 못했다"고 발표했다. 사람들은 흔히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말한다. 이것은 경험에서 비롯한 진실이다. 검찰은 사람들의 평범한 상식을 무시했다. 그만큼 검찰은 거만하다. 그럴수록 검찰은 더욱더 대중적 불신을 받을 뿐이다.

가진 자들에게는 그토록 관대한 검찰이 민주주의와 진보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게는 그토록 단호할 수가 없다. 김홍업 수사 결과를 발표

한 날, 검찰은 한총련 대의원 1백50여 명에게 소환 영장을 발부했다. 소환에 불응한 한총련 대의원들을 8월부터 구속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검찰이 존재하는 이유다 — 가난한 사람들의 저항으로부터 가진 자들을 보호하는 것.

부패는 한국만의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소위 아시아적 '연줄 자본주의'에서 비롯하는 문제도 아니다. 미국의 기업 사기는 부패가 체제의 불박이 장롱이라는 점을 보여 준다. 최근에 미국에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사기들이 잇따라 폭로되고 있다.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장거리 통신 회사 월드컴이 회계를 조작했다. 그 여파로 전 세계 주식 시장이 휘청거렸다. 복사기 제조 회사 제록스도 수익을 부풀렸다. 기업들의 수익 부풀리기는 미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영국 일간지 <데일리 미러>는 "심리적 공황 상태 — 사태가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본주의와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지금의 위기가 일탈한 몇몇 개인들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 기업들은 정상 궤도에서 일탈한 예외가 아니다. 문제는 더 근본적이다. 지금의 위기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비롯한다.

체제가 작동하는 방식에 의문을 나타내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자본주의적 세계화를 주도하는 국제 기구인 세계은행의 전 부총재였던 조지프 스티글리츠조차 최근에 출간한 책 <세계화와 불만 Globalization and its Discontents>(국내 미출간)에서 이 점을 인정했다.

"1999년 세계무역기구 [WTO] 회담에 반대하는 시애틀 시위는 충격이었다. 그 때 이래 운동은 더욱 강력해졌고 분노는 확대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개발도상국 국민들은 자국이 강요받고 있는 내핍 정책이 너무 가혹하다고 느낀 때마다 반란을 일으켰다. 그러나 그들의 저항은 서방에 거의 반향을 불러일으키지 못했다. 새로운 사실은 선진국에서 저항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변화를 강제할 대안적 방법이 없을 때 대중은 반란을 일으킨다."

우리는 부패한 체제가 아닌 다른 세계를 꿈꾸는 대중적 반란의 시대에 살고 있다.

목차

3 편집자 머리말

4 지금 세상은

특집

- 10 미국의 이라크 공격 계획
- 12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 14 미국 경제는 추락하는가?
- 16 플랜 콜롬비아

- 18 전지윤 최후 진술
- 21 정몽준 비판
- 22 노무현의 좌충우돌
- 24 국제형사재판소를 거부하는 미국
- 26 서해교전
- 29 북한 식량난과 북한 난민
- 32 [몸에 좋은 약은 쓰다] 가대위 전술 방어
- 34 서울대생 대량 징계

저항의 세계화

- 36 유럽사회포럼
- 38 세계사회포럼
- 39 스페인 세비아 : 유럽연합 반대 시위

격동의 세계

- 41 아르헨티나

- 43 여름 휴가 특선 비디오

- 45 비디오/뮤지컬/책

*다함께*에 가입하고 싶으시거나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Tel : 02-3295-4773 / Fax : 02-968-5907

E-mail : altog@her2002@ycoos.co.kr

http://altog@her.jinbo.net

독자 편지, 투쟁 소식/보고 등을 보내 주십시오.

항상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호 마감은 8월 13일입니다.

E-mail : altog@heredil@ycoos.co.kr

청와대의 대통령 아들 구출하기

청와대가 검찰과 법무부에 압력을 넣어 김홍걸·김홍업 구속을 막으려 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김대중은 당선 직후 국민과의 대화에서 “친인척 관리는 내가 잘 할 것이다. 그들도 잘할 것이니 국민은 큰 걱정을 안 해도 될 것이다. 내게 맡겨 달라.”고 큰 소리를 쳤다.

김대중의 두 아들 비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민주당과 청와대는 김대중이 자기 아들의 비리를 전혀 몰랐다는 듯이 연막을 피웠다. 김홍걸이 구속되고 나서 김대중의 큰 아들 김홍일은 “아버님도 그 정도인지는 몰랐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하지만 포스코 회장 유상부를 김홍걸과 만나게 해 준 장본인이 이회호였는데도 김대중이 아들의 비리를 몰랐다는 것은 지나가던 소도 웃을 일이다.

청와대는 김홍업과 김홍걸을 구하기 위해 수사 초기부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김홍걸과 최규선 게이트의 핵심 인물

인 김희완은 청와대와 통화하면서 한 달 넘게 잠적했다. 김홍업 비리의 주역인 최성규, 김성환, 이거성, 김병호, 이수동 등도 모두 검찰 소환 직전에 청와대의 도움을 받아 해외로 잠적했다.

청와대는 김홍걸과 입을 맞추는 시간을 벌기 위해 김홍걸의 귀국을 늦췄고 김대중과 통화한 일도 없다는 거짓말을 늘어놓았다. 그리고 영화 <007>에 버금가는 작전을 펴가며 김홍걸을 몰래 입국시켰다.

심지어 청와대는 김홍업의 친구 유진걸이 지병으로 쓰러지자 민정수석실 행정관 박종이를 병원에 보내 “강압수사를 받았다고 폭로하면 검찰 수사를 무력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거짓 자술서를 쓰도록 종용했다.

그러고도 뻔뻔스럽게 청와대는 김홍업 비리의 수사 기간이 특검 1백5일, 대검 50여 일이고 조사 대상자가 수백 명이 넘기 때문에 김홍업 수사가 인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1년 넘게 감옥에 갇혀 있는데 대통령 아들은 수사만 오래 받아도 인권 침해란 말인가?

김홍걸이 구속된 데 이어 김홍업의 구속이 가까워지자 조급해진 청와대는 법무장관 송정호에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검찰 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불만을 품은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이 청와대 외압을 폭로했다.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은 청와대가 “홍걸씨를 구속한 마당에 홍업씨까지 구속해야 하느냐”, “좀 적당히 하면 안 되겠느냐”고 수시로 압력을 넣었다고 토로했다. 게다가 총리 이한동까지 나서서 “어른이 매우 섭섭해하신다”고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청와대는 “지금이야 청와대가 구속하라고 해서 구속하고, 구속하지 말라고 해서 안 되는 그런 시대냐. 이런 루머를 퍼뜨리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시대에 그런 게 있을 법이나 한 일이나”고 시치미를 뻘다. 법무장관 송정호는 청와대의 미움을 사 결국 경질됐다.

검찰 수사가 너무 일방적이라고 맞장구치던 노무현은 청와대 외압설의 진실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김대중은 레임덕, 즉 임기말 통치권 누수 현상이 더욱 심해지자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의 거짓말은 입에 침이 마르기도 전에 폭로된다. 금방 탄로날 거짓말을 하루가 멀다하고 늘어놓는 곳이 바로 청와대 대변인실이다.

부패의 “성역”을 쌓는 자들

김대중 아들과 친인척, 청와대가 몸통이었던 대형 부패 추문이 폭로될 때마다 검찰은 목이 터져라 외쳤다. “엄정 수사”, “성역 없는 수사”. 그러나 수사 양상은 정해져 있었다. ‘내사 중’이지만 ‘결정적 증거를 포착 못’ 하거나 ‘뚜렷한 혐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수사가 마무리’ 되기 일쑤였다. 때로는 관련자가 도피해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수사는 난항’에 빠졌다. 몸통은 보일 듯 보이지 않았고 의혹만 무성했다. 그러다 갑작스런 수사 종결...

이 모든 과정에 검찰 최고 수뇌부가 있었다. 전 검찰총장 신승남과 광주고검장 김대웅은 김대중 정부의 부패를 옹호하고 수사를 방해하는 데 온갖 노력을 다 했다.

이들은 부패 추문 관련자들이 수사망을 피할 수 있도록 수사 정보를 알려줬다. 그들의 도피 시기도 정해줬다. 특히 신승남은 각종 비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김대중 아들들의 청탁을 충실하게 이행했다. 그 사건들을 모두 불구속 처리하거나 내사 종결시켰다. 둘다 청와대와 김대중 아들이 검찰 수사를 피해 가도록 온갖 수법을 총동원했다. 그야말로 그들은 청와대의 바람막이었다.

검찰 수뇌부가 부패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대중

의 반감이 높아지자 검찰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신승남 전 검찰총장과 김대중 광주고검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성역없는 수사, 성역없는 사정”을 외치지만 정작 검찰 자신의 비리가 드러났을 때는 ‘자신들만의 성역’ 지키기에 급급하다. 검찰은 철두철미하게 비민주적 기구다.

얼마 전 부패방지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한 현직 차관급 검사가 포함된 전·현직 장·차관급 비리 혐의에 대해 검찰은 “혐의 없음”으로 일관했다. 검찰 간부가 인사 청탁을 위해 수천만 원짜리 고급 카페트를 주고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말이다. 되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오히려 고발인을 옥박지르는가 하면, 진술 내용을 조서에 남겨달라는 요구를 묵살했다. 또 부패방지위원회가 요청한 사건 기록 열람도 거부했다.

검찰은 자신들의 특권을 이용해 주머니를 채워 왔다. 권력층들이 권력을 이용해 기업한테 돈을 받고 그 대가로 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패의 기본 패턴은 검찰 기구에 그대로 적용된다.

신승남은 지난해 1월 대검 차장의 자리에 있으면서 1천2백억 원대의 무역금융사

기 사건의 당사자를 불구속 처리했다. 신승남은 검찰 총수에 오른 뒤 울산지검 특수부가 조사중이던 평창중건 뇌물공여사건 내사를 중단시켰다. 기업 사냥꾼 이용호는 검찰 간부들한테 돈봉투를 건넸고 전방위 로비를 펼쳤다. 그 결과 이용호 게이트에 대한 수사는 여러 차례 신속하게 종결됐다. 다시 불거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에도 검찰 간부가 포함돼 있다. 용도변경을 위한 비자금만 해도 1백10억 원이다.

검찰이 이권을 쥌기는 동안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해졌다. 2001년 고위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에 따르면 법무부와 검찰 내 재산 공개 대상자 가운데 89.8퍼센트나 재산이 증가했다. 재산이 1억 원 이상 증가한 사람이 1명, 5천만 원 이상 증가한 사람이 9명이나 됐다. 신승남은 수천만 원대 고급 헬스클럽 회원권을 재산공개에서 누락했다. 1993년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도 차관급 1백25명 중 검찰 고위 간부 세 명이 재산 보유 순위 5위 안에 들었다.

검찰은 뺏속까지 부정부패로 얼룩져 있다. 부패 구조에 활용되는 “수천 가닥으로 연결된 부르주아들 사이의 끈”은 검찰 기구에도 연결돼 있다.

과연 이런 검찰이 부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까?

김덕업

미군 범죄에 맞선 저항

지난 6월 13일 육중한 미군 장갑차가 15세 소녀들의 몸을 무참하게 짓이겨 놓았다.

사고 직후 미군은 유족들에게 장례를 3일장으로 치루면 유족, 사회단체, 언론이 참석하는 합동면담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막상 장례를 치루고 나자 미군측은 “통역이 잘못됐다”는 어처구니 없는 이유를 들어 면담을 취소했다.

6월 28일 미2사단 공보실장 브라이언 메이커 소령은 태연하게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이렇게 말했다. “한미합동조사를 진행했고... 미군측의 과실 책임은 없었다.” 그러나 ‘미군 장갑차 여중생 고 신효순·심미선양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 김종일 집행위원장은 “의정부 경찰서와 25사단을 통해 확인해 보니 미군이 [조사를] 주도해서 한국 경찰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거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유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미군에 격렬하게 항의하자 7월 4일 라포르트 주한미군 사령관은 “미 육군이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음을 인정한다”고 실토해야 했다. 그러나 그 전날 미군은 한국이 간섭할 수 없도록 관련 미군 두 명을

미 군사법원에 과실치사죄로 기소해 미리 손을 써 놓았다.

여중생 압사 사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비굴하기 짝이 없다. 법무부는 대중적 분노에 떠밀려서야 미군측에 재판권을 포기할 것을 요청했다.

미2사단은 검찰 조사에 협조할테니 재판권 포기 요청을 유보하라고 한국 법무부에 압력을 넣었다. 그러나 조사받기로 약속한 7월 8일, 미군은 의정부지청에 나타나지 않았다. 미군들은 이틀 후 기습적으로 출두해서는 ‘신변 위협’과 ‘초상권 침해’를 들먹이며 제대로 조사도 받지 않고 한 시간만에 유유히 빠져 나갔다.

이런데도 검찰은 되레 그 책임을 언론 탓으로 돌렸다. 또 기자들의 공식 브리핑 요구마저 거절하고 미군들의 행방을 묻는 질문에는 “조사받고 있다”고 거짓말까지 했다. 되레 검찰은 이 사건에 항의하는 집회 도중 미군기지 철조망을 절단(군사시설보호법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원대 학생 이성철 씨를 구속했다. 또 미군에게 폭행당한 <민중의 소리> 기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구속영장은 실질심사에서 기각됐다).

사고 발생 후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미군 장갑차 압사

을 위한 투쟁이 대책위를 중심으로 급속히 조직되었다. 지금까지 미2사단 앞에서 네 번 범국민대회가 열렸고, 의정부역 광장과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농성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7월 10일 현재 투쟁 기금이 1천7백만 원 가까이 모금됐고 서명 운동에 7만 명이 넘게 참가했다. 그 결과 미군이 이 나라에서 온갖 더러운 범죄를 저질러온 이래 처음으로 한국 법무부가 미군측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한 것이다.

2000년 일본에서도 미군이 중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자 전 국민적인 투쟁이 일어났다. 결국 클린턴은 공식 사과했다. 우리나라에서도 매항리 주민들과 시민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육상 사격장을 폐쇄하고 손해배상소송에서 승리하는 큰 성과가 있었다.

지난 7월 14일 미군 규탄집회에는 4천여 명이 참여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이 집회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미군 범죄자를 한국 법정에 세우고 주한 미군과 부시의 공개 사과를 받아내려면 더 광범한 투쟁이 필요하다.

양인애

미군에게만 편안한 소파

6월 13일 한국 축구가 16강으로 달려가는 동안, 미군 장갑차는 신효순, 심미선 두 여중생의 몸 위로 질주했다. 우리는 소녀들의 참혹한 죽음과 미군의 오만한 자세 앞에서 소파(한미주둔군 지위협정)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소파는 한국 전쟁 뒤 이승만이 한국의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 1953년에 미국과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서 나왔다. 이 조약

으로 미군은 철수할 때까지 남한의 시설과 구역에 맘대로 쓸 수 있고, 미군이나 미군 가족에 대해서는 미국 당국만이 재판권을 갖게 되었다. 1967년 소파가 발효되자 살인, 강간, 강도 같은 중범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가 형식적으로나마 재판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실제로 재판한 것은 고작 0.7퍼센트에 불과했다.

소파는 1991년과 2001년 두 번 개정되었

다. 그러나 소파 개정 직후인 1992년 미군 범죄의 결정판인 윤금이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2000년 5월 경기도 매항리의 오폭 사건, 이태원 여중업원을 살해한 메카시 상병의 도주 사건으로 2001년 소파는 다시 개정됐다. 개정된 소파는 살인·강간·강도 같은 강력 범죄 발생시 피의자 신병 인도 시기를 형 확정 시점에서 기소시로 바꿨다.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는 더한층 개악됐다. 한국 정부는 징역 3년 이하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관할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강력범이라 해도 “미군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

보험업법개정안, 무엇을 노리나?

지난 7월 2일 재정부는 보험업법 전면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질병에 관한 개인정보'를 민간 보험회사들에게 넘겨 줄 수 있는 근거 조항이 포함돼 있다. 또한 민간기구가 병의원, 약국들을 대상으로 치료 내용이 타당한지 평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적 근거도 포함돼 있다.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에게 넘겨주려는 이러한 시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 산하 민간의보 태스크포스팀에서 처음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던 것으로, 삼성생명을 비롯한 생명보험 업계의 '민원사항'이다. 손해보지 않는 민간 의료보험 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자본이 소유해야겠다는 것이 이러한 시도의 내용이다. 당시 보건복지부의 이러한 시도는 민주노총, 전농, 보건의료단체들로 구성된 '민간 의료보험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위한 공대위'(이하 민간의보저지 공대위)의 강력한 투쟁으로 저지된 바 있다. 그런데 이제 보험 업계는 보건복지부를 통한 자신들의 로비가 좌절되자 대상을 바꿔 자신들의 본거지인 재정부를 통해 이를 다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다.

개인 질병 정보를 민간 보험회사가 관리

하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질병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보험업법은 일단 국가가 개인 질병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이를 민간 업체가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정보도 공공연히 유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단적인 예로 산재보험자료를 기반으로 한 산재환자를 랭크리스트가 공공연히 나돌고 운전면허 적성을 이유로 정신질환 병력이 경찰청에 공공연히 제공되고 있다. 이를 민간보험기관이 관리한다면? 질병 병력자들의 취업 제한, 건강보험 가입 금지 등 사회적 약자들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된다.

의료기관의 치료 내용에 대한 자본의 직접 통제를 초래하게 될 '민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기관의 설립'도 큰 문제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적절하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이야기는 곧 진료를 개인의 건강이 아니라 보험회사의 이익에 맞게 제한하겠다는 내용 이상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함으로써 민간 의료보험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자본에 대한 규제를 정부의 직접 규제에서 금융 규율로 바

꾸겠다는 일련의 금융화 조치 중 하나다. 보험 시장에 대한 규제 철폐와 완화, 은행-증권-보험산업의 겸업 허용을 뼈대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금융화 전략의 성공적인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시장 자유화 조치다. 그리고 제3차 금융 구조조정의 시발로 보인다. 은행과 증권의 금융 겸업화와 복합 금융기업의 제도화, 더 나아가 공적 연금과 사회 보장 체제 축소와 그 자리를 대체하는 재벌들의 사적 보험 확대 등, 미국에서 1970~1980년대를 거쳐 현재 진행중인 금융 구조조정 단계를 지금 한국이 시도하고 있다.

보험회사의 신규 진입장벽을 낮추고 재벌의 보험 시장 진출을 허용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고하는 세계 기준의 시장 규율을 도입하는 것 등은 김대중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금융화 전략의 새로운 조치다. 따라서 민간 의료보험 도입은 단지 인권 차원만이 아니라 자본의 사회보장 부문 지배를 위한 전략의 하나로 파악할 수 있다.

노동 단체와 시민 사회 단체들은 현재 개인 질병 정보 유출을 둘러싸고 반대 운동을 시작했고 금융 부문 노동자들의 구조조정 반대 투쟁도 시작되려 하고 있다. 보험업법 개정에서 관찰되고 추구되고 있는 자본의 지배 전략을 더 분명히 깨닫고 이에 맞서 투쟁할 때다.

변혜진(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우"에는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범죄자를 보호할 수 있다. 게다가 형이 확정돼야 기소를 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두었다.

한국 사법부는 기소를 한다고 해도 조사한 번 못한다. 미군 범죄자가 무죄로 풀려나도 상소할 수 없다.

소파 31개 조항 중 가장 독소 조항으로 꼽히는 22조 형사재판권은 범죄를 저지른 미군을 누가 재판하느냐는 문제를 다룬다. 범죄가 공무중에 벌어졌는지 아닌지에 따라 처리 절차가 달라진다. 전자라면 우리 나라에겐 재판권이 없다. 그런데 공무중이었는지

아니었는지 판단하는 쪽은 미국이다. 이번 여중생 압사 사건은 공무 집행중에 일어난 사고라는 게 미국측 주장이다

미군이 이 땅에 들어온 이후 10만 건 이상의 미군 범죄가 있었다. 그러나 2000년 국정감사 결과, 1997년에서 2000년 6월까지 주한미군이 저지른 범죄 1천여 건 중에서 형사 처벌을 받은 것은 단 4건에 불과하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미군 범죄자의 신병 구속이나 수사 처벌이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사건의 진상 규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김정숙



사진 김현욱

계속되는 아프가니스탄의 비극

7월 1일 새벽 2시, 미군 AC-130 공격기와 B-52 폭격기가 아프가니스탄 중부 우루즈간주 카카라크 마을의 한 결혼식장에 공격을 퍼붓기 시작했다. 폭격은 2시간이나 계속됐다. 결혼식장은 이수라장이 됐다. 결혼식 옷을 차려 입은 아이들의 몸뚱이가 갈기갈기 찢겨졌다.

폭격이 끝나자 폐허로 변한 이 곳에 미군 특수부대원들이 진입했다. 그들은 봉쇄선을 친 뒤 주민들의 손발을 묶고 곳곳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미군 헬기에 사격한 사람을 찾는다든 명분이었다. 그러나 주민들은 어떤 무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미군은 폭격으로 알몸이 드러난 여성들에게 사진기와 비디오 카메라를 들이대는 만행도 저질렀다.

미군은 아침 8시까지 부상자들이 병원에 가는 것도 막았다. 팔·다리가 부러진 사람들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 치료도 못받고 숨졌다. 미군이 물러간 뒤에야 부상자들은 서울과 대전 간 거리만큼 떨어진 칸다하르로 이송될 수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관리들은 사망자가 48명이라고 공식 집계했다. 그러나 현지 목격자들에 따르면 미군이 같은 시간에 폭격한 샤토가이, 마자르 등 인근 마을까지 합쳐 사망자는 2백50명에 달했다. 미국 국방부는 처음에 “폭격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고 발뻠하다가 7월 8일이 돼서야 민간인 오폭을 시인했다. 그리고는 피해 보상이라치고 텐트와 담요 몇 개를 던져줬을 뿐이다.

미국은 탈레반이 투항한 뒤에도 폭격을 멈추지 않았다. 지난해 12월에도 미군은 임시정부가 새로 수립된 것을 축하하러 가던 차량 행렬에 폭격을 퍼부었다. 자그마치 60여 명이 죽었다. 또 5월에는 불 킬 마

을의 결혼식장을 산산조각냈다.

불안정

이미 미국은 군벌들 간의 권력 다툼을 자극해 아프가니스탄을 불안정의 소용돌이에 빠뜨렸다.

미국은 과도정부 수반 카르자이를 임시정부의 수반이 되도록 강력하게 후원했다. 카르자이는 미국 석유업체 유노켈의 컨설턴트로서, 1996년 유노켈이 추진한 가스관 건설 사업에서 중책을 맡은 바 있다. 이것이 미국이 카르자이를 자신들의 꼭두각시 정권의 수반으로 임명한 이유다.

미국은 6월에 열린 종족회의도 자기들 입맛에 맞게 조작했다. 카르자이 역시 미국의 입맛에 맞는 ‘국민 정부’를 세우려 안간힘 썼다. 그러나 일부 군벌들은 4월에 귀국한 자히르 전 국왕에게 충성을 보내고 있다. 파티아 주지사 파드샤 칸은 “자히르가 수반이 되지 못하면 또 다른 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으름장까지 놓았다.

그러나 미국은 종족회의가 늦춰지는 틈을 타 자히르를 협박해 선거 후보 명단에서 자신의 이름을 빼도록 했다. 과도정부의 국방장관(모하메드 카심 파힘)은 다른 후보들을 협박하려고 군대까지 동원한 ‘덕분’에 임시정부 국방장관 자리를 손에 쥐었다.

군벌들은 미국이 온갖 협박과 뇌물을 통해 제 입맛대로 세운 새 임시정부에 큰 불만을 갖고 있다. 파슈툰계 군벌들은 임시정부 내각을 대부분 타지크계가 휩쓸었다는 점에 반발하고 있다. 타지크계는 탈레반을 몰아내는 데 가장 중요한 구실을 한 자신들이 임시정부 수반을 차지하지 못한 것을 못마땅해 한다. 또 북부 지역 군벌들은 임시 정부

가 자신들의 아편 밀매를 단속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다.

7월 6일 임시정부 부통령인 하지 압둘 카디르 암살 사건은 이러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한 것이다. 카디르의 암살은 긴장을 더욱 첨예하게 만들었다. 파슈툰족은 임시정부 수반인 카르자이가 이번 암살의 배후를 가려내지 못하면 폭동을 일으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했다. 파슈툰족 출신인 카디르의 암살을 계기로 파슈툰족은 내부 결속력을 다지려 한다. 이번에는 이것이 타지크계를 자극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카디르의 암살을 병력 증파의 구실로 삼으려 한다. 사건 다음 날 미국 상원 의원들은 TV 대담 프로에 출연해 군사 개입을 확대하자고 떠들었다. 이런 분위기 이용해 미국은 가스관 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7월 9일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의 고위 관리들이 모여 가스관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한편에서는 민간인을 학살하고 불안정을 초래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가스관 건설을 서두르는 미국에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미국과 미국의 꼭두각시 카르자이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있다. 7월 4일 카불에서 벌어진 반미 시위가 이를 증명한다. 이 시위는 탈레반이 붕괴한 뒤 최초로 벌어진 반미 시위였다. 반전·반미 운동을 건설하는 것만이 미국이 자행하는 참상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한상원

죽음을 거래하는 다국적 제약회사



7·11 개각으로 물러난 전 보건복지부장관 이태복은 “국내외 제약사의 압력 때문에 경질됐다.”고 주장했다.

의사 수가와 더불어 비싼 약값이 건강보험 재정 적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태복은 수가와 약가를 인하하는 조치 — 형식적인 인하에 불과한 — 을 발표했다. 의사들이 반발했지만 수가는 조금 인하됐다. 그러나 약가 인하는 발표된 즉시 폐기됐다. 예컨대 오리지널 약품 — 과거에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던 약품 — 의 가격을 낮추려던 약가재평가 제도와 참조가격제 도입은 지난해 5월 건강보험 재정 대책에 포함됐다가 반도체·철강 등에 대한 미국의 통상 압력이 제기되자 즉시 폐기됐다.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국제무역기구(WTO)와 선진국 정부를 등에 업고 자신들이 특허권을 보유한 약품을 다른 어느 누구도 생산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5대 다국적 제약회사를 합치면 멕시코와 인도의 경제 규모보다 크다. 사하라 이남 국가 전체의 경제를 합한 것보다는 두 배나 크다. 비아그라로 유명한 화이자의 한국 지사인 한국화이자는 작년 한 해 고혈압 치료제인 노바스크 하나로만 9백5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비만 치료제 제니칼을 생산하는 한국로슈도 이 약품 하나로만 작년 한 해 4백억 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회사 전체 매출은 1천억 원을 넘어섰다.

이윤

제약회사들은 막대한 이윤을 위해 온갖 비열한 수단을 동원하고 파렴치한 짓을 저지른다.

미국 제약회사들의 기구인 미국 제약협회는 값싼 약을 수입하거나 생산하는 국가들에 대해 무역 제재를 가하라고 미국 정부에 압력을 넣었다. 미국 정부는 제약회사의 요구대로 인도와 도미니카 공화국, 대

만,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을 포함해 30개국을 상대로 무역 제재를 가했다.

이윤에 혈안이 된 제약회사들은 가난한 사람들의 삶을 파괴한다. 약값을 직접 높이는 것 외에도 보험료 인상, 심지어 건강보험 재정 고갈에 이르는 갖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다.

백혈병 치료제 글리벡으로 유명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이 만든 위궤양 치료제 잔탁은 한국에서 5백6원이다. 하지만 동일한 성분의 국내 카피제품인 라티콘정은 49원에 불과하다. 특허권이 만료된 약품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제를 하지는 못하지만 각종 로비 때문에 가격이 비싼데도 잔탁의 시장 점유율은 여전히 높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인도 회사 시플라를 상대로 특허권 소송을 냈다. 시플라는 인도에서 값싼(미국 약값의 20분의 1에서 50분의 1가격) 에이즈 치료제를 생산해 왔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천식 치료제를 1달러에 판매하는 시플라가 같은 약을 27달러에 파는 거대 제약회사들의 “정당한” 이윤을 갉아먹는 “해적”이라고 비난했다. 인도인 1인당 연간 보건 예산이 10달러에 불과한 데도 말이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한국에서 글리벡이 한 달에 수백만 원 대에 판매되지 않는다면 약품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국적 제약회사는 죽음을 대가로 이윤을 챙기는 살인마다. 다국적 제약회사에 맞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연대해야 한다.

안진형

미국이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

이수현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성큼 다가온 듯하다. 미국은 그 동안 다른 제국주의 열강과의 생각 차이, 아랍 각국의 반발 등을 우려해 이라크 공격을 미뤄왔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나 이집트 같은 전통적인 미국의 우방이 군사 기지 제공을 거부했기 때문에 전쟁 준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쿠웨이트나 요르단 같은 나라들을 이라크 침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한다. 쿠웨이트는 1990년 8월 이라크에게 침략당했다가 이듬해 미국이 일으킨 제2차 걸프전을 통해 '해방'된 나라다.

요르단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반대해 왔다. 여느 아랍 국가와 마찬가지로 요

르단 내에서도 미국에 대한 반감이 드높다. 요르단 인구 5백여만 명 중에 60퍼센트 이상이 팔레스타인계다. 7월 11일에도 요르단 정부는 요르단이 미국의 이라크 공격을 위한 전초기지로 이용될 것이라는 보도를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나 요르단 정부는 대중의 압력에 떠밀려 마지못해 그럴 뿐이다. 7월 13일치 <가디언>은 요르단 왕자 하산이 영국 런던에서 망명중인 이라크 군장교들과 반정부 단체 조직원들을 만나 이라크 대통령 사담 후세인을 타도할 계획을 모의했다고 보도했다.

요르단 국왕 압둘라 2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지지했다. 부시는 그 대가로 요르단에 대한 군사·경제 원조액을 두 배로 늘려 5억 달러까지 증액했고 추가로 1억 달러를 의회에 요청해 놓았다. 7월 말에 압둘라 2세는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와 여섯번째로 만날 예정이다. 사담 후세인의 명운이 다 했다고 생각한 압둘라가 지금이야말로 이라크의 반정부 조직들과 연계를 맺을 적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지난 6월 16일 부시는 사담 후세인을 암살하거나 생포할 수 있는 미국 특수부대의 작전명령서에 서명하면서 이라크에 대한 전면적인 군사 공격을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그래서 6월 17일치 <시카고 선 타임스>의 1면 헤드라인은 “중앙정보국(CIA), 살인면허를 얻다”였다.

6월 24일 부시는 중동 “평화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그것은 50여 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대 팔레스타인 전쟁을 승인한 것에 불과했다. 팔레스타인 측에서 보면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굴복을 강요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스라엘을 편드는 것으로 유명한 미국의 주류 언론들조차 부시의 평화안은 균형 잡히지 않은 것이라고 인정할 정도였다.

중동 “평화안”

부시가 제시한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의 첫째 조

미국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학살을 후원하고 있다.



사진 최윤진

건은 야세르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 수반을 제거하라는 것이었다. 부시는 “팔레스타인 국민들이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새로운 기구들을 구성해 인접국들과 새로운 안보 협정을 체결하면,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원할 것이다.” 하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라파트를 내쫓고 새로운 지도자들을 선출하고, 이 새 지도부가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수 있다고 아랍 국가들에게 확신시켜야 하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이 이런 조건을 승인한 뒤에야 미국은 팔레스타인 국가의 국경선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였다.

결국 이번 ‘평화안’은 더는 팔레스타인 문제에 발목잡히지 않겠다는 부시 일당의 속내를 드러낸 것이다.

작년 10월 2일 부시는 “팔레스타인 독립 국가 건설이 중동에 관한 미국의 미래상 가운데 일부”라며 팔레스타인 국가 건설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물론 이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을 앞두고 아랍 각국 민중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술책이었다. 정확히 엿새 뒤인 10월 8일 부시는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다.

지금 부시는 이라크 침공이라는 ‘과제’를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하다. 11월 중간 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부시로선 결코 여유부릴 때가 아니다.

7월 10일 부시 행정부의 핵심 관료들은 부시와 백악관 참모들이 미군 중부사령부에서 마련한 이라크 공격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토미 프랭크스 중부사령부 사령관은 이런 작전 계획을 이미 지난 5월에 백악관과 국방부에 제출했다.

이 대규모 전면 공격 작전에는 약 20만 명에 이르는 5개 지상군 사단을 비롯해, 해병 2개 사단, 공군 전폭기 15개 편대 등이 참여할 계획이다. 미국은 이라크에 육해공군 삼면 입체 공격을 감행하려 한다. 미국은 최대 10개국에 있는 공군 기지들에서 발진한 수백 대의 폭격기로 이라크를 공습할 것이다. 또, 영국 지상군 2만 5천여 명도 참여할 계획이다. 그래서 이번 이라크 전쟁에 동원될 지상군의 총 병력 규모는 25만 명에 이른다.

그 전쟁 계획의 세부 내용이 워낙 세밀해서 전문가들은 그것이 단순한 예비 단계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라고 말한다.

이런 계획들은 사담 후세인이 무기 사찰을 받아들이건 말건 미국은 이라크를 공격할 태세가 돼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지난 6월 말 미국 부통령 딕 체니는 “방어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 “우리는 적과 전투를 해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전쟁 분위기를 더욱 고취한 바 있다.

<업저버>는 요르단의 무사파크 살티 공군기지에서는 이미 침공 준비가 진행중이라고 보도했다. 쿠웨이트 내 5개 미군 사단 병력은 이미 병참과 통신 연락 체계를 갖추 수 있도록 기지 장소를 물색 중이고, 미국 공군이 걸프 국가들에 임시 탄약고들을 건설하고 탄약과 예비 부품들을 비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 주둔 제101공수여단이 철수하고 제82공수여단이 대신 들어간 것도 사전 정지 작업의 일환인 듯하다.

미국과 영국의 폭격과 경제 제재 때문에 이라크는 이미 재앙을 겪고 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은 경제 제재로 이라크 어린이 50만 명이 사망했다고 추정한다. 미국이 또다시 이라크를 침공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고 더 끔찍한 재앙이 발생할 것이다.

자본과 전쟁에 반대하는 각국의 반자본주의·반전 운동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에 반대하는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영국의 반전동맹(Stop the War Coalition)은 9월 28일 대규모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부시는 이란·이라크와 함께 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다. 가뜰이나 서해 교전으로 냉전 분위기가 고조돼 있는 우리 나라에서도 대중적인 반전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강철구 “세계 어느 나라보다 투명한 것으로 알려진 주식회사 미국은 알고 보니 기업들의 가짜 보고서 천국이였다.” 미국의 대기업들이 저지른 추잡한 부패 행위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자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업의 깨끗하고 투명한 이미지에 대한 환상을 내던지고 있다.

1997년 동아시아에 경제 위기가 닥쳤을 때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기업의 투명성’을 본받으라고 직접도록 설교했다. 신자유주의자들은 “시장이 부패를 없앨 것”이라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그들이 설파한 미국식 기업 모델이 이제는 증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말에 터진 엔론 부패 스캔들은 미국 기업 관행에서 일탈한 현상이 아니었다. 엔론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는 부패 추문의 첫 주자였을 뿐이다. 웬만한 미국 기업들은 탈세, 횡령, 주가 조작, 매출 조작, 분식 회계 등 고전 수법을 써먹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미국에서 장거리 전화업체 2위인 월드컴은 네트워크 장비 보수에 들어간 38억 달러(4조 5천6백만 원)를 지출 항목이 아니라 자본 투자 항목에 넣어 회계 조작했다. 월드컴이 2001년 14억 달러, 올해 1분기 1억 3천만 달러의 순익을 올렸다고 발표한 것은 순전히 사기였다. 부통령 딕 체니가 홍보 비디오에 출연해 열렬히 칭찬한 회계법인 아더 앤더슨이 월드컴 회계를 감사했다. 아더 앤더슨은 엔론 부패에도 연관돼 있다.

월드컴이 조작한 회계 액수는 엔론의 6배다. 사상 최대 규모다. 그러나 이 불명예 기록도 곧 깨질 판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복사기 제조업체 제록스가 60억 달러가 넘는 매출액을 분식 회계했을지 모른다고 보도했다. 지난 1월 파산 신청을 한 광섬유 네트워크 업체 글로벌크로싱은 다른 통신업체들과 맞교환하는 방식으로 매출을 부풀렸다.

현재 20개 기업이 회계 사기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외에도 K마트, IBM, GE, AOL 타임워너, GM 등 미국 간판급 스타 기업들이 회계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사기와 부패의 체제

작년 <비즈니스 위크>가 훌륭한 최고경영자(CEO)라고 추켜세운 타이코 인터내셔널 전 회장 데니스 코르로우스키는 회사 자금을 유용해 호화 저택을 구입했다. 또 1천3백만 달러짜리 고가 미술품을 구입하면서 1백만 달러를 탈세했다.

월드컴 최고 경영진 12명이 월드컴 전체 주식의 50퍼센트 가량을 소유하고 있다. 이 파렴치범들은 월드컴 주식이 폭락할 것을 알면서도 뻔뻔스럽게 노동자들에게 퇴직 후를 고려해 자사 주식을 사라고 부추겼다. 전체 연금 기금의 55퍼센트인 2억 1천8백만 달러가 자사 주식에 투자됐다. 최고 경영진들은 막대한 이윤을 남겼다. 그들은 악재를 발표하기 전에 주식을 미리 팔아 손실을 최소화했다. 경영진들이 역겹게 미소지으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을 때 순식간에 연금을 날려버린 노동자들은 통탄의 눈물을 흘렸다.

미국 경제 시스템의 우월성을 자랑하던 제너럴일렉트릭(GE)의 전 CEO 잭 웰치도 분식 회계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 CEO의 대표 인물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잭 웰치 자서전 2만 권을 구입해 국민은행 직원들에게 읽게 했을 정도로 잭 웰치는 전 세계 기업주들에게 선망과 존경의 대상이었다. 사람들은 “CEO의 아버지라던 잭 웰치, 너마저...”라며 놀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다.

조지 W 부시는 “일부 못된 망나니 때문에 미국의 자유기업 시스템이 흔들린다”며 잘못을 저지른 기업

의회 청문회장에 선
월드컴 경영진

주들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바로 그 못된 망나니들이 백악관 안에서 설치고 있다. 부시 행정부 인사들이야말로 분식 회계와 기업 부정 행위의 원조다.

부통령 딕 체니는 1995~2000년 7월 사이에 세계 2위의 거대 석유회사 헬리버튼의 회장 겸 경영자로 있을 당시 4억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부풀렸다. “회계를 조작하는 기업인들을 실행에 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던 폴 오닐 재무장관도 알코아 회장이었을 때에 회계를 조작했다. 질레드 사이언스 회장이던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도 구설수에 올라 있다. 최고의 망나니 조지 W 부시도 하켄에너지 이사 재직시 주식 내부자 거래를 했다. 부시는 하켄에너지에게서 18만 3백75달러를 저리로 융자받아 이 회사의 주식을 매입했다.

부시는 악화하는 경제 위기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부패 추문으로 정치 위기에 직면해 있다. 최근 실시한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미국인들 3분의 1가량만이 “부시가 경제와 기업에 대한 태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일련의 분식 회계 사건들은 체제가 더 깊은 위기로 빠져드는 징후다. 작년 미국에서 기업이 2백57개 파산했다. 분식 회계는 투자자들이 기대한 것과 실제 이윤 사이의 격차를 메우기 위한 시도였다. 투자의 광란이 파잉생산과 이윤을 저하로 이어진 정보 통신, 에너지

“못된 망나니” 엄단을 외치는 부시를 딕 체니가 쳐다보고 있다

거래업체, 바이오 테크 등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린 분야에서 분식 회계 규모가 컸다.

경제 위기의 대가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다. 미국 여론 조사 기관 퓨는 2001년 말 미국 최고 CEO의 평균 연봉이 1천45만 달러(약 1백25억 원)라고 밝혔다. 1985년에 비하면 무려 8백66퍼센트나 오른 셈이다.

반면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은 계속 하락해 왔다. 미국 최고 CEO의 평균 연봉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의 4백10배고, 육체 노동자의 5백31배다! 미국 최고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이 가져가야 할 몫을 강탈해서 거대한 부를 쌓았다.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추구한 이윤 경쟁으로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애꿎은 노동자들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월드컴 경영진들은 회사가 위기에 처하자 전체 직원의 20퍼센트인 1만 7천 명을 감원하겠다고 선포했다. 미국 인터넷 업계에서만 지난 2년간 15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잃었다.

자본주의 체제는 이윤 경쟁에 기초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체제는 이윤 지상주의를 조장하고 정당화한다. 체제를 운영하는 자들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 온갖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부패와 사기가 ‘후진국병’이 아니라 자본주의 체제의 풍토병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추락하는 '신경제'

이정구 미국발 세계 경제 위기에 대한 불안감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7월 초 미국 다우존스 지수와 나스닥 지수가 각각 9천 포인트와 1천4백 포인트 밑으로 떨어지면서 1997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증시 폭락은 1997년 이후 이른바 '신경제'라는 것이 단지 금융 거품 성장에 불과했음을 보여 주었다.

모건 스탠리 증권사의 수석 경제학자인 스티븐 로치는 미국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 내수 부진으로 다시 한 번 불황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리먼 브러더스 증권사도 불황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또다시 금리를 내릴 거라고 전망했다.

최근까지만 해도 미국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이 난무했다. 전 세계 많은 애널리스트와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 호황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다섯 달 전에 이렇게 지적했다. "2001년 말 미국 경제는 연초 전망보다 인상적일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이는 지난해의 경기 침체가 시작하기도 전에 끝나버렸음을 암시한다." 이 신문사의 유명 칼럼니스트인 마틴 울프는 "경제 회복이 진행중이며, [불황에 대한 주장은] 겁먹은 어린이에게나 먹힐 동화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의 사상과 애널리스트들은 경기 후퇴가 2000년부터 시작됐는데도 작년 9·11 테러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지금 다우존스와 나스닥 주가가 9·11 테러 때보다 더 폭락한 것을 그들은 뭐라 설명할 수 있을까!

주요 기업들의 회계 조작과 불법 행위 때문에 '주식회사 미국'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고 있다. 엔론에 이어 타이코, 글로벌 크로싱, 월드컴, 머크, 제록스 등 '신경제'의 총아들이 줄줄이 분식 회계로 파산 절차를 밟거나 조사를 받고 있다. 이 기업들의 가장 큰 '기술 혁신'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은 이윤을 있는 것처럼 꾸미는 회계 조작이었다. (관련 기사 '미국식 기업 모델의 파산' 참조)

조지 W 부시는 "썩은 사과가 증시를 망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경제의 선두주자'로 칭송받던 기업들의 회계 부정이 소수의 탐욕 때문만은 아니다. 이런 위기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비롯한

것이다.

1996년부터 2000년 중반까지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경제처럼 보였다. 미국 경제가 세계 시장의 성장 가운데 40퍼센트를 차지할 정도였다. 그런데 이런 호황의 토대는 불안정했다.

호황기에 많은 기업들은 고수익을 기대하며 생산을 늘렸다. 기업들은 서로 경쟁자보다 앞서기를 바랐다. 이윤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도 덩달아 치솟았다. 고평가된 주가 덕분에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빌려 생산 시설을 확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기업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1998년 이래로 통신 관련 기업들의 부채 규모가 지난 2백년 동안 영국 정부의 누적 부채 규모보다 더 빨리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돈을 빌려 생산을 늘리는 추세는 광기에 가까웠다. 통신 산업의 경우에도 기업들은 인터넷과 휴대폰 설비 투자에 미친 듯이 뛰어어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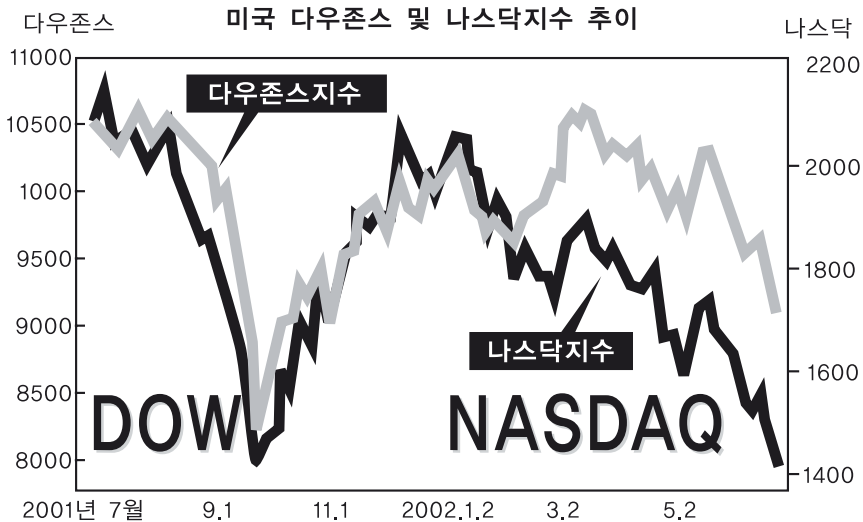
하지만 미국 기업들은 이윤율이 1997년 말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무시할 수 없었다. IMF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의 미국편에서 "민간 부문의 투자는 과잉 투자와 취약한 수익성 때문에 제약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취약한 수익성

민간 경제 연구소 컨퍼런스 보드는 "올 상반기 내내 소비가 경기 회복의 원동력이었다"며 소비 지출 확대가 경기 불황을 막아줄 거라 내다봤다.

실제로 미국의 올 1분기 성장이 예상보다 높은 5.6퍼센트 성장을 한 데에는 자산 효과가 컸다. 9·11 테러 이후 주가가 상승하자 부유해졌다고 생각한 가계가 더 많은 대출을 받아서라도 소비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IMF의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면 이 추세가 계속될지 의문스럽다. 1998~2000년에는 개인의 가처분 소득과 소비가 비슷하거나 가처분 소득이 조금 높았다. 그러나 그 뒤에는, 소비가 가처분 소득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그 격차도 커지고 있다. 이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근래 들어 가장 낮은 금리를 유지해 부유한 소비자들의 소비와 대출을 부추



전망

최근 몇 달 동안 미국의 제조업 산출량, 제조업 가동률 같은 생산 지표가 거의 정체 수준이다. 또 공급관리협회가 발표하는 제조업 업황(業況) 지수도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현실 지표는 미국 경제가 올 하반기에는 뚜렷하게 회복될 거라는 주류 경제학자들의 전망과 어긋난다.

이미 1990년대에 이루어진 과잉 투자 때문에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제의 수익성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전의 거품 호황의 규모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 불황은 지금보다 더 깊

졌기 때문이다.

IMF는 최근 증시가 폭락해 자산이 줄어들었지만 부동산 가격이 자산 감소분을 벌충해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부동산 부문은 이미 과열 징후를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주택 가격은 42퍼센트 올랐다. 이는 1980년대 말 거품호황 때의 수준을 넘어서는 수치다.

가처분 소득과 소비 사이의 괴리는 경기 회복의 버팀목처럼 언급되는 소비 증가 추세가 올 하반기에도 이어지기는 힘들다는 점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런 소비 증가는 미국 경제에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소비 증가가 거대한 국제수지 적자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4월, 소비재 수입이 그 전달에 비해 무려 10.7퍼센트나 늘어나 무역적자는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지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액은 국민소득의 4.5퍼센트에 이른

다. 무역수지 적자폭이 늘어나고 주가가 폭락해 미국에 흘러든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다. 그 바람에 미국의 달러화는 지난 17개월 동안 유로화 대비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강한 달러화는 그동안 미국 자본주의의 역동성을 나타내는 주요 상징 중 하나였다.

1995년 역(逆)플라자 합의 이후 미국은 강한 달러 정책을 통해 세계의 유휴자본을 끌어들이 수 있었다. 유입된 자금은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바뀌었다. 이에 기초해 통화량이 늘고 신용이 확대되면서 1997년 이후 실물 경제에서는 이윤율이 저하했지만 금융 부문에서는 주가 상승과 자산 효과를 통한 거품 성장이 가능했다.

1997년 동아시아가 위기에 빠졌을 때도, 헤지펀드 롱텀캐피털매니지먼트(LTCM)가 파산했을 때도, 미국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1997년 하반기 그린스펀 FRB 의장이 연방기금 금리를 세 차례나 인하했고, 미국 정부가 LTCM에 구제금융을 제공해 파산을 모면하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어질 가능성이 많다.

장래 고수익을 예상하고 돈을 마구 빌린 기업들의 자금 사정이 나빠지면서 자금 시장이 먼저 얼어붙게 될 것이다.

1990년대에 일본과 유럽이 정체하고 있을 때 미국은 호황을 유지해 세계 경제가 더 큰 침체로 빠지는 것을 막아 주었다. 그런데 지금 미국 경제의 불황은 전 세계에 파장을 미치고 있다. 회복의 기미를 보이던 일본 경제가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수 있다는 위기감에 싸여 있다.

미국을 수출 시장으로 삼고 있는 한국 같은 신흥 공업국들이 미국 경기 후퇴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다. 미국의 뒷마당인 남미에는 이미 미국 경제 불황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주가 폭락과 달러화 가치 하락이 서로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경우, 비록 가능성은 적지만 미국 경제는 급격한 금융 공황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금융 공황이 미국을 포함한 세계 경제를 곧장 파국으로 치닫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

부시는 9·11 테러 이후 세금과 금리 인하, 재정지출 확대 등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해 경제가 불황으로 빠지는 것을 막으려 했다. 앞으로도 부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케인즈주의 정책을 통해 불황의 심화를 막으려 할 것이다.

하지만 부시는 정치적으로는 부패와 금융 사기로 인한 정당성 위기, 경제적으로는 적자 재정으로의 전환과 민간 부문의 엄청난 누적 적자 때문에 경기부양 정책에 서도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장래 미국 경제는 추세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면서도 급격한 하락과 부분적이고 힘없는 회복이 번갈아 가며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미국 경제의 위기는 정치 불안정으로 이어져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전쟁과 반란 같은 격변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

미국의 더러운 전쟁



For More Info Visit: www.SOAWNE.org

정형준

올해 5월 2일 콜롬비아에서 민간인 1백19명이 죽었다. 콜롬비아 내전 사상 하루만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것이다. 좌익 게릴라인 콜롬비아혁명군(FARC)과 우익 민병대가 벌인 전투로 보아야 부근에서 생긴 비극이었다.

미국 대통령 조지 W 부시는 재빨리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콜롬비아 정규군에 6천2백만 달러를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콜롬비아 정규군은 우익 민병대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 우익 민병대는 우익 정치인, 대지주, 농장주가 마약 거래, 토지 강점, 노동자·농민 착취를 위해 운영하는 사설 군대다. 이들은 ‘플랜 콜롬비아’ 이후 급격히 성장했다.

콜롬비아의 전 대통령 안드레스 파스트라나는 1999년에 ‘플랜 콜롬비아’를 의회에 제출했다. 물론 미국과 사전 조율을 마친 뒤였다. 그 명분은 콜롬비아의 안정과 평화를 회복한다는 것이었고, 적어도 표면상으로는 마약 근절책이 그 핵심이었다.

미국 정부는 콜롬비아 정부군과 대규모 게릴라 조직들 사이의 내전이 모종의 마약 전쟁이라고 주장하며 개입을 정당화했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플랜 콜롬비아가 불법 마약 거래에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그것은 과거의 마약 근절책들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다. 콜롬비아 정부의 공식 성명서들은 게릴라들을 쳐부수는 데만 관심이 있는 반면, 미국 정부의 대변인들은 ‘지역 안보’ 문제에만 몰두했다.

당시 미국 대통령 클린턴은 플랜 콜롬비아에 13억 달러를 원조했다. 이 원조액은 대부분 무기 구입과 군사 훈련에 집중됐다. 유일하게 다른 조치는 고엽제 대량 살포 프로그램이었다. 그 목적은 다른 작물들은 그대로 둔 채 코카와 양귀비만 생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콜롬비아 코카의 40퍼센트는 북부 지역에서 재배되는데 제조 작업은 남부에 집중됐다. 그리고 제조제 살포 지역의 농민은 대부분 난민이 됐다. 물론 마약 근절은 실패했다. 코카 식물을 재배해 수확을 하는 데는 60일이면 충분해 다른 지역에서 코카와 양귀비를 매우 빨리 재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코카 식물을 고사시키는 계획은 코카 덩불을 죽이

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토지에서 쫓아내고, 게릴라의 지지 기반을 무너뜨리고 그 영토를 더 쉽게 점령하게 만든다. 결국 그런 지역을 호시탐탐 노리는 석유·가스 회사들이 그 지역을 장악하게 된다.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를 더 무장시켰다. 미국의 원조액 13억 달러 중 82퍼센트는 직접적인 군사 목적에 사용됐다. 그 중 47퍼센트는 정부군 마약 단속 부대를 위한 헬기 구입에, 27퍼센트는 해상 작전 용으로, 7퍼센트는 경찰을 위해 쓰였다. 이것을 보면 플랜 콜롬비아의 억압적인 목적은 의심할 여지가 거의 없다. 이는 특히 콜롬비아 남부 지역을 통제하려는 군사 계획이다. 이미 인접국 에콰도르 정부는 만타 공군 기지와 콜롬비아 국경 인근 내륙 기지를 미국에게 내줬다.

결국 플랜 콜롬비아는 콜롬비아의 군사화를 증대시키고 2백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경제 위기가 심화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 피해자들은 소농들, 석유 부문과 운송 부문의 노동자들, 도시 빈민들이었다. 그들은 가두 시위를 벌이며 계속 저항하고 있다. 2001년 7월 공공·운수 부문 노동자들의 파업은 플랜 콜롬비아의 사회적 결과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 준 증거였다.

살인부대

지난 6월 콜롬비아의 새 대통령으로 알바로 Uribe가 당선됐다. 미국과 지역 언론은 광적으로 그를 지지했다. 우리베는 콜롬비아 최대의 우익 민병대인 콜롬비아연합자위대(AUC)와 정규군 장교들의 후원을 받고 있다. AUC는 ‘좌익 협력자’로 의심되는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쇠톱으로 죽이는 걸로 유명한 살인 부대다. 우리베의 당선은 노동조합 활동가와 좌파 활동가, 38년 간의 내전으로 고통받는 콜롬비아 노동계급에게는 끔찍한 소식이다.

우리베는 지방 시장과 주지사를 거치면서 69개의 ‘살인 부대’ 창설을 지원했다. ‘살인 부대’는 마약 거래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는 이들에게 라디오, 무기, 오토바이를 제공했다. 이런 그가 승리한 데는 광포한 우익 민병대와 20퍼센트가 넘는 실업률 때문에 대중

콜롬비아 대통령
알바로 우리베

이 자포자기한 것이 크게 한몫 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 밖으로 나와 투표하지 못한 유권자가 54퍼센트나 됐다.

그가 성공을 거둔 데는 전임자의 공도 컸다. 전 대통령 파스트라나는 콜롬비아혁명군(FARC)에 비무장지대를 제안했다. 우리베는 미국이 지원한 13억 달러로 군사 조직을 더 무장시킬 시간을 벌기 위해 협상에 참여했다. 올 2월이 되자 파스트라나는 FARC에 군사 공격을 재개했다. 우리베가 거느린 무장 조직의 입지는 더욱 커졌다.

미국은 우리베의 잔혹한 경력과 우익 살인 부대 따위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그의 당선을 축하했다. FARC에 대항한 전쟁을 확대하려는 우리베의 공약이 콜롬비아에서 부시의 목표와 딱 맞아떨어지기 때문이다.

미국 대사 앤 패터슨은 일간지 인터뷰에서 “멕시코와 베네수엘라 다음으로 콜롬비아가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산유국입니다. … 9·11 사건 이후 미국의 전통적 석유 수입 원은 덜 안전해졌고, … 콜롬비아는 미국에 훨씬 더 많은 석유를 수출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우리의 석유 수입 원을 다변화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하고 말하며 우리베의 당선을 축하했다.

우리베의 전쟁 계획은 전보다 더 진전해 있다. 그는 콜롬비아 정규군과 경찰의 규모를 두 배로 늘리려 한다. 그리고 40억 달러를 들여 ‘민간인 밀고자’ 1백만 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물론 미국 정부가 그 대부분을 지원할 것이다.

미국 의회는 콜롬비아 주둔



미군의 수를 제한하는 조항을 폐지할 계획이다. 이는 기존의 ‘마약과의 전쟁’ (플랜 콜롬비아)에다 ‘테러와의 전쟁’을 덧붙여, 미국의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려는 시도다.

에바도르와 콜롬비아의 군사 기지는 ‘마약과의 전쟁’을 빌미로 마약 거래의 통로가 되는 페루, 볼리비아에 대한 개입을 정당화할 수 있다. 콜롬비아의 지정학적 위치가 미국에게는 더없이 중요해지고 있다. 우리베에 대한 미국의 지원도 날개를 달게 될 것이다.

물론 미국의 개입은 더 많은 피와 비극을 부를 것이다. 부시도 이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극이 자신의 이익에 적합한 이상, 독재자와 도살꾼 지원을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FARC 같은 좌파 게릴라들의 저항은 정당하다. 그렇지만 그들의 전략에는 문제가 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 해방 투쟁을 대신하려 한다. 콜롬비아에서도 노동자·민중의 운동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평범한 대중이 해방을 위한 투쟁에 참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라틴 아메리카 정치사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어떤 해방구도 고립해서는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우리는 미국이 콜롬비아의 더러운 전쟁을 후원하는데 반대해야 한다. ‘마약과의 전쟁’도 ‘테러와의 전쟁’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익과 패권을 유지하려는 것일 뿐이다. 

또 다른 세계를 향한 신념

지긋지긋한 김대중 정부 집권 5년이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역사는 이 시기를 빈부 격차가 획기적으로 벌어지고 자살률이 높아진 시기, 정리해고·비정규직·구속 노동자가 어느 때보다 크게 늘어난 시기, 청와대·국정원·검찰 등이 연루된 더러운 비리가 악취를 풍긴 시기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 시기는 입만 열면 '민주주의와 인권'을 떠들면서 국가보안법을 휘둘러 수많은 한총련 학생과 사회주의자 들을 잡아들이고 특공대와 망치로 노동자들을 짓밟으면서도 노벨평화상까지 받아먹는 구역질나는 위선의 시기였습니다.

또 이 시기는 '한반도 평화와 화해'를 내걸고, 수십조 원을 들여 전투기·구축함·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를 사들이고, 한미 군사 공조와 전쟁 연습을 강화하면서 커다란 제양을 키워 온 기만의 시기였습니다.

이 끔찍한 5년을 마무리하면서 이 정부는 회수불가능한 공적자금을 국민 1인당 2백만 원 가까이 부담하라는 청구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정권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것도 이 정부의 특징이었습니다. 덕분에 저는 1999년 '웃로비' 정국에 이어, 이번 '홍3트리오' 정국에서 두번째로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제가 인터넷에 올린 모든 글을 '이적표현물'의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학교에서 수업 시간이나 세미나 때 발표한 발제문, 합법 출판물에 기고한 글, 심지어 1999년 구속 때의 최후 진술문도 있습니다. 이런 식이라면 검찰은 제 생활 곳곳에서 '이적' 리포트, '이적' 답안지, '이적' 이메일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보기에 저는 지금 또 다른 '이적표현물'을 낭독하고 있는 셈입니다.

제가 위만했다는 국가보안법 조항은 '반국가단체 찬양·고무'입니다. 그러나 저는 북한이 남한과 똑같이 노동자들이 억압받고 착취받는 계급사회이고 북한 노동자들이 김정일 관료 지배 계급을 타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이런 저는 구속하면서 북한에

'잠입'해 김정일을 만나 '회합·통신'하고, 서로 '찬양·고무'한 박근혜는 그냥 내버려 둔다면, 이 법은 분명 분단 상황과 북한을 핑계로 이 나라 정권과 체제를 비판하는 세력을 옥죄려는 도구에 다름 아닙니다.

검찰 공소장은 제가 쓴 글 가운데 김대중과 <조선일보>는 "싸우는 형제"라는 표현을 문제삼았습니다. 그러나 월드컵 열기를 틈타 택시·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을 탄압하는 데 손발을 맞추는 정부와 <조선일보>의 모습은 제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제가 주장한 명백한 진실을 반박하지는 못하면서, 제 주장이 '자유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며 저를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폭로한 부당한 현실은 그대로 둔 채, 제 입만 틀어막으려는 검찰이야말로 '자유민주질서'를 해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작년 초 대우자동차 집회에 참여해 '폭력'을 휘둘렀다고 저를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죄없는 노동자 1천7백50명의 밥줄을 하루아침에 끊어버리고, 인천 지역을 '준계엄령' 상태로 만들어 저항을 봉쇄하고 작년 4월 10일 대낮에 노동자들을 피범벅으로 만든 정부와 경찰의 조직적이고 잔인한 폭력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조선일보>가 미군 장갑차에 깔려 처

참하게 짓이겨져 죽은

두 소녀는 모

른 척하

면 서,



우익 교수 송복 퇴임식에서 벌어진 항의 팻말 시위에 “세상이 무너지고 있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과 비슷합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작년에 제가 참여한 집회에서 다친 10명의 경찰관 명단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작년 대우차 사태로 생계를 잃어 몸과 마음에 피멍이 맺힌 수천, 수만 명의 노동자들 명단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호화·사치·'도망'을 즐기고 있는 김우중을 체포하거나, '최규선 게이트'에서 또다시 드러난 김우중-김대중 커넥션을 밝히려는 어떠한 진지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기야 이용호 게이트·이형택 게이트·김홍업 게이트 등 온갖 비리에 연루돼 있는 검찰이 비리를 파헤치길 바라는 것은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일지 모릅니다.

검찰은 제가 쓴 병역 비리 관련 기사에서 “거대하게 얽히고 설킨 병역 비리의 부패 사슬을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쓴 게 ‘국가변란 선전·선동’이라며 저를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원으로서 ‘자본과 전쟁에 반대하여 다른 세계를 위해 싸우자’고 쓴 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자본주의가 낳은 이 세계를 돌아봅시다.

불합리한 세계

가난한 여성들이 감금당한 채 노예 매춘을 하다가 불에 타 죽어갈 때 김대중 정부는 5조 8천억 원을 들여 F-15 전투기를 구입했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하루 14시간 캄캄한 방에 처박혀 축구공을 껴매서 우유 한 통 값도 안 되는 돈을 받을 때, 두 나라 정부는 한번에 1천2백만 명이 죽을 수 있는 핵전쟁에 불을 당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 매일 2만 4천 명이 굶어 죽어갈 때 미국에서는 6백40억 달러를 들여 미사일 방어(MD)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 3명의 재산이 가장 가난한 48개 국가의 전체 소득보다 더 많습니다.

이토록 불합리한 이 세계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 미국, 유럽, 일본 등 세계 주요 경제를 동시에 강타한 주가 폭락과 아르헨티나에서 남미 각국으로 번지는 위기가 그것입니다. 이러한 위기는 마치 폐차 직전의 자동차가 잦은 고장을 일으키듯, 인간성을 파괴해 온 이 체제가 이제 그만 무대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역사의 경고입니다.

세계를 지배하는 자들은 ‘신자유주의’가 위기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해 왔습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아르헨티나에서 두 명 중 한 명을 절대 빈곤층으로 만들며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동유럽·아시아·아프리카에서 모두 신자유주의는 빈익빈 부익부, 수명 단축, 질병 확산, 환경 파괴 등을 낳았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낳은 ‘기적의 신경제’라 불린 미국에서 엔론과 월드컴의 거대한 회계조작 비리와 몰락은 ‘신경제’라는 신기루가 빠르게 무너지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끔찍한 파괴와 살육의 전쟁을 낳았습니다. 무한 시장 경쟁은 무한 군비 경쟁을 낳았고,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세계화된 전쟁 위기를 낳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를 만들고, 무기를 팔아 이익을 남기고, 또 사용해 온 전쟁광들의 우두머리 조지 W. 부시는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란·이라크·북한을 ‘악의 축’으로 지목했습니다. 부시는 지금 살기등등하게 ‘선제공격’을 외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석유와 패권을 위해 유고와 아프가니스탄을 박살낸 바 있습니다. 이런 미국이 근래 추락하는 달러와 무역 분쟁 속에서 유럽, 중국, 러시아 등에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이라크, 북한 등 이른바 지역 ‘강패’ 국가들을 선제 공격하지 않으리란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런 야만들은 이 세계가 보여주는 그림의 한쪽입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1999년말 시애틀에서 시작된 ‘반세계화, 반자본주의’ 운동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운동은 성장했습니다. 작년 7월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G8 정상회담에 반대해 30만 명이 결집했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G8 정상들은 로키산맥으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이 운동에서 가장 인기있는 구호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입니다. 파괴와 살육으로 물들어가는 자본과

전쟁의 세계에 반대해, 자유와 평화가 꽃피는 ‘다른 세계’를 꿈꾸며, 이를 위해 싸우는 것은 누구도 감



히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위대한 권리입니다. 막대한 부가 살상 무기와 부정부패로 낭비되거나, 극소수 특권층에게 독점되지 않고 가난한 여성, 어린이, 빈민들에게 돌려져 그들이 더 이상 노예매춘을 하거나, 하루종일 축구공을 꿰매거나, 굶주려 죽지 않아도 되는 세상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따라서 가능합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나

그러나 ‘다른 세계’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자본주의 세계’라는 이 괴물은 신자유주의와 전쟁이 보여주듯, 노동자·민중의 피를 빨아 얼마든지 생명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1930년 대공황을 5천만 명이 희생된 2차 대전이라는 대살육과 파괴를 통해 벗어난 바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분명한 지도부가 없이 우왕좌왕했던 노동자들은 히틀러와 홀로코스트라는 재앙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근래 프랑스 대선에서 르펜은 이런 악몽을 다시 떠오르게 합니다. 오로지 마르크스가 “자본주의의 무덤을 파는 세력”이라고 부른 노동계급이 단호하고 명확한 지도부 아래 단결해 이 괴물을 무덤에 처넣을 때만 인류는 야만이 아닌 희망을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말한 “사회주의냐 야만이나”는 물음은 우리에게 점점 더 절실한 선택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나라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이라는 독자적 정당을 건설하고, 이 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약진한 것은 대단히 기쁜 일입니다. 대선에서도 우리는 ‘부패의 원조’인 한나라당도 ‘부패의 계승자’인 민주당도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진 이장하



이회창은 “친기업 정당”을 자처하고, 노무현은 “나쁜 분배주의자가 아니”라고 변명합니다. ‘옥탑방’이 무엇인지도 몰랐다는 이 두 사람은 갈수록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서해에서 교전이 벌어지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정치인들은 “전쟁을 치르자”고, “10배, 100배의 응징을 해야 한다”고 설쳐대고 있습니다. 보수 언론은 “교전수칙을 바꾸어 선제공격을 하자”고 합니다. 참고로 국회의원 거대 언론 사주와 그 자식들의병역면제율은 일반인의 10배 이상입니다.

이들 가운데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 노동자들과 한반도의 운명을 맡겨서는 결코 안됩니다. 오로지 독자적 노동자 정당으로 단결한 노동자들이 이회창이나 노무현 중 누가 대통령이 되든 이들이 시작할 신자유주의 공격과 전쟁 위기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지난 6월 한 달간 월드컵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그동안 억눌리고 꿈을 빼앗긴 많은 젊은이들이 ‘대-한민국’을 외치며 월드컵에서 분출구를 찾았습니다. 정부와 언론은 사악하게도 월드컵 열기를 악용해 자신의 부정부패를 가리고, 노동자들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기업주들의 주머니를 채웠습니다.

월드컵 열기는 시그네틱스 여성 노동자들이 12일 동안 벌인 처절한 단식 농성도, 미군 장갑차에 치참하게 몽개진 두 소녀의 죽음도 가려 버렸습니다. 미군에겐 적소리도 없던 검찰은 항의집회에서 미군 기지 철조망을 절단한 것이 ‘폭력’이라며 시위참가자를 연행했습니다.

이제 젊은이들은 그토록 목놓아 외친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과 위험을 돌아봐야 합니다. 정의와 평화를 바라는 모든 젊은이들은 우리 꿈과 미래를 앗아갈 신자유주의와 미국이 벌이는 전쟁 책동에 맞서 노동자들과 함께 어께 걸어야 합니다. 노동자·민중의 피와 눈물로 얼룩진 ‘대한민국’은 지금 우리들의 이상과 열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월드컵 응원외의 ‘붉은 바다’ 뿐 아니라, 자본과 전쟁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학생들의 거대한 투쟁의 ‘붉은 바다’가 이뤄져야 합니다. 신자유주의, 전쟁, 파시즘이라는 전 세계 지배자들의 야수적 절망의 합창에 맞서 전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과 투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한 나라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야만적인 이윤 경쟁과 군비 경쟁을 몰아내고 노동자들이 합리적이고 민주적으로 세상을 통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쟁취할 미래이자 제 변할 수 없는 신념입니다. 제 육신이 어디에 있든 저는 언제나 이 투쟁과 함께할 것입니다. 

월드컵 신화에 가려진 부패와 탐욕

정병호

월드컵 4강 진입을 계기로 정몽준의 '주가'가 치솟고 있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미 정몽준이 노무현을 제치고 지지를 2위를 기록했다. 정몽준은 이러한 인기를 등에 업고 대선에 출마하려 한다.

최근 정몽준이 누리는 인기는 “깨끗하고 참신한 이미지”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인상은 한때 이회창이 그랬듯이 완전히 허구다.

그는 우리 나라 부패의 대명사 재벌의 기업주이다. 정몽준은 주로 대부분 상속과 주식 투기로 재산을 불렸다. 정몽준의 재산은 스스로 신고한 것만 1천7백20억 4천4백만 원이나 된다. 작년에만 주가 상승으로 6백83억 원을 벌었다.

이것은 작년 봉급 생활자 평균 소득 월 2백63만 원보다 2천 배나 많은 액수다. 게다가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는 7백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달에 1백만 원도 채 못 버니, 정몽준은 이들에 비해 약 6천 배 가량을 번 셈이다.

1999년에는 주식 시세 차이로 1천9백82억 4천5백만 원을 벌어들였다. 당시 그는 2만3천 원이던 현대중공업 비상장 주식 가격을 상장하면서 7만 원대로 끌어올렸다. 그 뒤 회사 관리자들을 동원해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에게 “할인값”이라고 속여 5만2천 원에 팔아 이득을 챙겼다.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담보로 회사에서 대출까지 받아 자사 주식을 샀다.

그러나 주가가 폭락해 노동자들은 상여금을 고스란히 빼이고 빚더미에 올랐다. 그런데도 그는 이듬해에 노동자들을 약 올리듯 1만9천 원이라는 헐값에 주식을 다시 사들였다.

작년 현대중공업은 노동자들의 희생으로 7조 4천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그런데도 정씨 일가를 구제하느라 하이닉스와 현대아산에 내부 지원을 해줘 7백81억 원의 적자를 냈다. 게다가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위해 1천억 원 상당을 투자해 9천2백억 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삼호중공업을 인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런 정몽준이 ‘깨끗

하다’는 것은 그가 스포츠를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적극 이용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몽준의 월드컵 유치 성공 신화도 거대한 로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다. 한국과 일본의 월드컵 조직위원회는 국제축구연맹(FIFA)에 각각 1억 달러(1천2백억 원)씩 상납했다. 정몽준은 또 FIFA 부회장이 되기 위해 1993년 아시아 각국의 축구협회 대표들을 매수했다. 그는 축구 협회 대표들에게 성적 향상을 베풀고 네팔 축구협회 대표에게 현대자동차 네팔 총대리점 영업권을 주는 등 각종 이권을 제공했다.

죽음의 조선소

정몽준은 반노동자적인 인물이기도 하다. 그는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흘린 피와 땀을 거름 삼아 대기업주로 성장했다. 현대중공업이 세계 제일의 조선회사로 성장하기까지는 지난 30년 동안 산재 사망자 3백26명, 산재 사고 1만6천77건에 이르는 노동자들의 희생이 있었다.

“산재 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일어나고, 사고 나면 누가 갑판 위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갑판 위에서 떨어져 그 자리에서 즉사한 동료, 대형 블록에 깔려 형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오징어포가 된 동료의 시신을 수습하면서 현대 노동자들은 분노의 눈물을 흘렸다.”(이수원, 《현대 그룹 노동운동, 그 격동의 역사》, 대륙)

“죽음의 조선소” 현대중공업에서는 아직도 해마다 7~8명이 산재로 죽는다. 올해만 벌써 5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도 정몽준은 작업 환경을 개선하는 데 조금도 투자하지 않는다.

대신 작업 환경을 개선하라고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에 무자비한 테러로 맞섰다. 1988년부터 1989년까지 1백28일 동안 진행된 파업 때 정몽준은 1천여 명의 구사대를 조직해 노동자들을 폭력으로 짓밟았다. 급기야 1989년 1월 8일에는 곡괭이, 야구방망이, 각목 등으로 노조 지도부를 습격했다. 같은 해 2월 21일에는 파업 노동자들에게 식칼 테러를 저질렀다.

1992년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할 때는 “높은 임금 수준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국제 경쟁력을 급격히 잃을 것이 우려된다며 고작 5퍼센트(3만4천 원)만 인상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그 해 대선에서 정주영이 국민당 후보로 출마하자 정몽준은 선박 수출대금 등을 빼돌려 6백67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

정몽준은 결코 ‘깨끗하고 온화한’ 사람이 아니다. 부패·노동자 착취가 ‘월드컵 성공’에 가려져 있는 그의 진짜 본모습이다. 

파업중인 현대 노동자들에게 직장 복귀를 종용하고 있는 정몽준(1987년)

용도 폐기될 처지에 놓인 노무현

김어진

노무현과 이회창의 지지율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노무현의 추락에는 날개가 없어 보인다. 노무현의 처지는 갈수록 꺾여져해지고 있다. 반면 선거 압승에 이어 서해교전으로 이회창은 갈수록 기세등등하다.

노무현은 서해교전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다가 7월 초 대 국민선언 때에서야 입을 뗐다. 그러나 “북한의 도발을 경계” 한다는 그의 말은 우익의 광기를 잠재우지도,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바라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도 못했다.

선거 참패 뒤 여권은 더 분열했다. 노무현을 용도폐기하자는 주장이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여권 내에서 벌써부터 노무현을 대체할 인물 논의가 한창이다. 8·8 보궐선거가 여권의 끔찍한 참패로 끝난다면 ‘노무현 무망론’은 더 널리 퍼질 것이다.

초조해진 노무현은 ‘김대중과 거리두기’로 위기에서 벗어나려 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탈김대중’ 계획은 벌써부터 물거품이 되고 있다. 이미 <한겨레>는 ‘거리두기’ 전술이 지지율을 높이는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되레 노무현이 “탈DJ” 하기보다는 김대중이 “탈노무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정도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7·11 개각이다. 노무현은 이미 한 달 전에 이회창이 말한 거국중립내각을 김대중한테 제안했다. 그러나 김대중은 7·11 개각에서 청와대의 청탁을 거절한 법무부 장관을 내쫓고 그 자리에 뻔뻔스럽게도 김대중의 충복이자 패스 21 추문으로 물러났던 김정길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앉혔다.

비리 언론 사장 홍석현과 각 테일 잔을 부딪치는 노무현

보궐선거 후보자 선정 문제도 마찬가지였다. 노무현은 “DJ 가신” 남궁진을 광명 후보로 선정하는 것에 반대했다. 그러나 결국 남궁진이 내정됐다. 노무현의 아태재단 정리 요구도 묵살됐다. 아태재단이 이권 청탁과 뇌물의 창구라는 게 이미 상식으로 통하는 마당에 철면피 김대중은 “아태 재단의 비리는 없다”고 또 거짓말했다.

사실 노무현의 “청산 프로그램”에 획기적인 내용이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의 주장대로 김홍일이 탈당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노무현이 ‘정책대안’ 이랍시고 내놓은 것들은 있으나마나 한 것들이다. 부패청산 특별입법 추진,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 청문회, 친인척 비리 조사 기구 설치 등은 대형 비리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비리 국회의원들이 내놓은 판에 박힌 부패 ‘방조’ 프로그램에 불과하다. 그래서 노무현의 “DJ 차별화 설명” 간담회에 초대받은 시민사회 단체 지도자들은 노무현의 설명이 끝나자 “감이 잘 안 온다”며 혹평했다(<내일신문> 6월 27일 치).

모순과 오락가락

그러나 노무현의 ‘탈DJ’는 그의 모순적 처지를 분명하게 드러낸다. 김대중과 거리를 두려 하다보니 당장 여권 내에서 “반노무현” 움직임이 생겨났다. 이미 노무현의 ‘탈DJ’는 여권 내부의 분열을 더 깊게 만들었다. 여권 내에서 그의 지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노무현 캠프조차 “약발은 기대하기 어렵다. 당내 입지만 약화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노무현은 종종 여권 내부의 반발을 무마하려는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다. 6월 말 노무현이 내놓은 “청산 계획”에 동교동계가 발끈하자 갑자기 수위를 낮추겠다고며 저자세를 보인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이번에는 ‘탈DJ’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반발에 부딪히게 된다. 이것은 노무현의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래서 노무현은 민주당에서 김대중의 그림자를 지우기 위해 안간힘을 써야 한다.

이런 모순을 잘 잘 보여준 예가 바로 7·11 개각에 대한 노무현의 반응이었다. 노무현은 “개각을 하더라도 한 거냐”며 불만을 토했다가 여권 내부의 불멘소리를 접하고는 “여성 총리라는 점을 높게 평가하지 못해 죄송하다. 잘 모르고 한 소리”라며 말을 바꾸었다. 그러다 돌연 총리에 대한 각종 의혹이 번지자 “대의 활동을 자제”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한마디로 노무현은 전면적으로 탈DJ를 할 수도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양쪽의 압력에서 오락가락을 반복하고 있다.

왜 노무현은 좌충우돌을 반복하는 걸까? 그는 두 달 전만 해도 변화와 개혁의 대표 주자인 것처럼 보였다. 근본 배경은 양극화된 지금의 계급 세력 관계이다. 우익은 더욱 보수화되고 사회 변화를 바라는 대중은 더욱 급진화된 결과, 중도주의가 찌그러드는 게 국제적인 추세다.

노무현은 이런 양극화 분위기에 결박된 포로다. 그는 양극화 분위기에서 좌충우돌하다가 결국 기성 정치권에서 자신의 입지를 넓히려 하다 보니 갈수록 우경화하고 있다. 노무현한테서 기성 정치인과는 다른 면모를 발견하려 했던 사람들은 점점 실망하고 있다.

노무현은 “왜 ‘DJ 양자’를 자처하냐”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되레 “[대통령에게] 너무 야박하게 하지 말자”는 태도로 일관했다. 그 바람에 “이번 6·13 선거에서 민주당의 참패는 노후보에 대한 실망도 포함됐다.”(<내일신문> 6월 26일치)

노무현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부패한 정치인과 부자한테 추파를 던져 자신의 입지를 세우려 한다. 6월 28일 부패한 언론 재벌 홍석현의 세계신문 협회 회장 취임을 축하하는 자리에 버젓이 참석한 것도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노무현은 얼마 전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총리 임명권’을 주장함으로써 한나라당 일부 세력에게 추파를 던지고 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물론, 8·8 보선 때 김대중에 대한 대중적 혐오감이 또 한번 확인되고 여권이 핵분열하게 되는 지경에 이

르게 된다면, 노무현이 김대중과 결별을 선언하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이 때조차 노무현의 정치가 변화와 개혁에 대한 열망을 채워주지 못할 거라는 진실에는 변함이 없다.

노무현은 말끝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노무현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은 노무현의 “상식”에서 평등과 정의, 복지, 희망 같은 단어를 찾고 싶어 한다.

그러나 노무현의 “상식”은 주로 이윤을 우선하는 부자들의 “상식”이다. <이코노미스트>가 대선 후보를 대상으로 한 ‘기업관 및 경제철학 설문조사’에서 노무현은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이지 부의 사회 환원이나 종업원 복지 향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윤을 사회로 환원해 복지와 실업자 구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노무현은 지난 5월 20일 유럽연합 14개국 대사들과 식사하는 자리에서 “공기업 민영화를 지지한다”고 분명하게 밝혔다. 조용히 식사를 하던 유럽연합 14개국 대사들은 이 발언이 나오자 일제히 수첩과 볼펜을 들고 필기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알짜 공기업에 관심이 많은 다국적 기업들한테 이 말은 솔깃하게 들렸을 것이다(<시민의 신문>).

그가 획기적이라 평가하는 소득분배 경제 정책은 어떤가. 김대중의 속빈 강정, 생산적 복지와 다를 바 없다. 타이거풀스의 고문 변

호사였던 그는 다른 기성 정치인들처럼 부패 추문에 얽힌 기업한테서 정치 후원금을 자연스럽게 받아 챙겼다. 그가 기성 정치인들과는 다를 거라는 기대는 그가 집권할 기회를 갖기도 전에 무너지고 있다.

노무현이 승부수를 걸고 있는 8·8 보궐선거에서 여당은 또 한번 참패할 것이다. 얼마나 끔찍하게 참패하냐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그리 되면 노무현은 여당 후보 자리에서 용도폐기될 운명에 놓이게 될지 모른다. 그리 된다면 해서 안타깝게 여길 필요가 있을까? 오히려 노무현의 추락과 그 과정에서 보여 주는 모순적 행보는 진정한 사회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에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절실히 보여 주고 있다. 

미국의 일방주의적 독선

사라 장

미국 시카고 지역
반전위원회 활동가

2002년 4월 11일 유엔은 새로운 국제형사재판소(ICC) 설립을 축하하는 행사를 가졌다. 새로운 국제형사재판소는 인류에 대한 범죄, 예를 들면 전쟁 범죄나 인종 학살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판하기 위해 만든 기구다. 148개국 대표들이 참여한 로마 회의에서 이 안은 다수가 지지해 통과됐다. 국제형사재판소는 여러 해 동안 진행된 논의 끝에 세워졌고, 형사재판소를 비준한 나라의 판사들로 구성될 것이다.

많은 인권 단체 운동가들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을 환영했다. 그러나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이 기구 설립에 강력히 반대했다. 그리고 2002년 7월부터 시행될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미국 국민에 대한 절대적인 소추 면책권을 요구했다. 부시는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미국이 보스니아에 파견한 평화유지군을 모두 철수하겠다고 협박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미국 리처드 윌리엄슨은 미국의 평화유지군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적절한 조치가 없다면 모든 미군을 철수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보인 이런 반응에 대해 유럽 국가들 대다수가 비판적인 시각을 표명했다. 심지어 미국이 벌이는 대 테러 전쟁의 파트너인 영국, 프랑스 등의 주요 신문들도 미국이 국제법 위에 군림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전 세계 언론의 강한 공격과 비판을 받아 미국은 요구를 조금 낮춰 국제형사재판소를 비준하지 않는 국가의 평화유지군에 대해 12개월 동안 법 집행을 유예할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반대하지 않는 한 매년 유예 기간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것은 미국이 처음에 요구한 완전한 소추 면책권과 그 내용에서 다를 게 하나도 없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비준하기 전까지는 어느 미국인도 국제형사재판에 회부할 수 없다. 또,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재판권이 없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반대하는 의도는 앞으로도 자신들이 저지른 “국제 범죄”를 계속 저지르겠다는 것이다.

9월 11일 테러 공격 이후 미군은 아프가니스탄뿐 아니라 필리핀, 그루지아, 예멘에 투입됐다. 또, 원래 주둔

하던 유고슬라비아와 콜롬비아에서 군사 행동을 더욱 강화했다. 미국 지도자들은 약소국들을 상대로 벌이는 미국의 군사 행동이 전쟁 범죄에 속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작년 11월에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마자리 사리프에서 탈레반 포로 수백 명을 학살했다. 이 과정에서 미군 특수부대는 죄수들이 갇혀있는 건물에 헬리콥터 기관총을 난사하고 폭탄을 투하했다. 이 행위는 당연히 국제적 심판을 받을 만한 만행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다.

2002년 6월까지 66개국이 비준해 공식적으로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는 2002년 7월 1일 이후 벌어진 모든 전쟁 범죄에 대해 사법권을 행사한다. 미국은 국제형사재판소 설립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거부권을 행사했다.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날 밤 미군은 아프가니스탄의 작은 마을을 폭격했다. 마을 결혼식에 참석한 아프간인 여성과 어린이들 대다수가 살해당했다.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달가와 하지 않는 이유는 아프가니스탄, 보스니아, 코소보 등에서 벌어진 미군의 만행 말고도 미국이 준비중인 대 이라크 전쟁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 벌어진 이라크전은 20세기 미 제국주의가 자행한 피의 역사에서 두드러지는 사례 중 하나다. 걸프전 당시 미국은 이라크 민간인 수만 명을 학살했고, 그 뒤 10여 년 동안 미국이 주도한 이라크 경제 제재는 매달 5백 명이 넘는 이라크 어린이들의 생명을 앗아갔다. 미국은 최근 다시 대 이라크 전쟁을 선언했다. 그리고 이 전쟁이 “대 테러 전쟁”의 연장으로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를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는 7월 8일 백악관 연설을 통해 “독재 정권”들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어떤 방법도 불사하겠다고 다시 한번 전쟁 의지를 강조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 전쟁을 위해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많은 민간인을 학살한 “스마트 폭탄”을 준비해 놓았다. 펜타곤의 전쟁 계획은 <뉴욕타임스>가 밝혔듯이 적어도 25만 명의 지상군과 수백 대의 전투기가 대 이라크전에 사용될 것임을 보여준다. 미국은 공습 목표물에 군사 시설뿐 아니라 민간 시설도 포함시켰다.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8천여 명을 죽였다(위 사진).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 비준을 거부하는 것은 자국의 과거를 들춰낼 뿐 아니라 미래의 학살이 방해받을까 봐 우려해서다.

미국이 국제법을 거부한 역사는 최근만이 아니다. 국제형사재판소 전에도 제2차세계대전 뒤에 주권 국가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분쟁을 처리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있었다. 1980년대 미국이 니카라과에서 산디니스타 좌파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중앙정보국(CIA)을 앞세워 벌인 “콘트라” 작전에 대해 국제사법재판소가 유죄 선고를 내리자 레이건 행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를 거부했다.

물론, 미국이 이런 국제 기구를 항상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국제 기구를 이용하기도 한다. 클린턴 정부는 두 차례의 발칸 전쟁에서 미군과 나토 연합군이 세르비아 지역에서 저지른 민간인 학살 만행을 덮어 버리려고 새로 구성된 유고 정부에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오랜 파트너이던 밀로세비치를 납치해 국제 재판에 회부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완전한 소추 면책권 요구에 강하게 반발하며 마치 민주주의의 수호자인 양 행세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미국의 일방주의에 반대해 다국상호개입주의를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유럽 강대국들의 반발은 결국 지금까지 미국이 단독으로 결정해 온 공격 표적을 자신들도 같이 고를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에 불과하다.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직접 참여한 영국과 그 전쟁을 지지한 프랑스·독일 등 유럽 강국들이 미국에 일관되게 반대할 리 없다. 벌써 프랑스와 독일은 미국이 내놓은 타협책 — 1년간 형사 소추 면제 — 을 덩석 물었다.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사력을 거리낌없이 사용하기 위해 국제형사재판소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아래로부터 조직된 행동이 국제형사재판소를 무력화하려는 미 제국주의에 맞선 가장 효과적인 투쟁 방법이다. ■

미국의 대북 압박이 낳은 한반도 위기

김인식

<다함께>는 지난호에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평화는 전쟁의 막간극이 돼 버렸다.” 하고 경고한 바 있다. 이 우울한 경고가 한반도에서도 점차 현실이 되고 있다. 6월 29일 남북 해군이 서해에서 전투를 벌였다. 가슴아프게도 그 과정에서 남북의 젊은 병사들 수십 명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점(정황상 그렇게 보인다)과 남한 해군이 교전에서 이기지 못했다는 점이 남한 지배자들의 전쟁 광기를 자극했다. 남한 지배 계급 전체는 북한과의 국경 분쟁에서 밀린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이자 치욕이라고 여긴다. ‘국토 수호’를 내세운 강경 대응에 관한 한 지배 계급 내에 이견은 존재하지 않는다. ‘햇볕 정책’을 말하는 김대중 정부나 ‘상호주의’를 말하는 한나라당이나 이 점에서는 한목소리다.

서해교전과 뒤이은 일련의 대응들은 철저하게 이런 논리에 따랐다. 이것은 남북한 사이의 분쟁(예컨대 북방한계선을 둘러싼)이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번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김대중은 서해교전 사태 직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모든 책임이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한 북측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대중의 주장은 국제

적으로 공인받지 못하는 억지다.

NLL은 정전협정 합의 규정에 포함돼 있지 않다. NLL은 유엔군 사령관(한국군 작전 통제권을 장악하고 있던 [있는])이 내부에서 운용하는 해군 작전 규정이다. NLL은 1952년 9월 28일에 유엔군 총사령관이던 미 육군 대장 마크 W 클라크가 중국과 북한의 해안을 봉쇄하기 위해 유엔에 요청한 “클라크 라인”을 따른 것이었다. “클라크 라인”은 1953년 7월 27일에 정전협정이 맺어짐에 따라 그 해 8월 27일에 소멸했다.

북방한계선은 정전협정에 반대한 이승만 정부가 남측 단독으로 북진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이 규정한 내부 한계선이었다. 즉, 남측 군사력이 행동할 수 있는 북쪽 한계선이다.(그 반대가 아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도 NLL이 합법적이라고 공개적으로 발표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북한도 NLL을 “목시적”으로나 “실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다.

냉전 우파들은 ‘식량과 비료를 줬더니 그 보답이 포탄이냐’고 북한을 비난했다. 그들은 평화를 위해 전쟁을 벌여야 한다고 기업을 토했다.(이것은 자유를 지키기 위해 민주주의를 억압해야 한다는 논리를 떠올리게 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창성은 “이번 사태를 막으려면 확전을 각오해야 한다. 전쟁 한번 해오, 한 번만 똑바로 하면 안 들어 온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 이회창도 “원칙을 세우고, 어긋나면 응징이 있다는 것을 보이는 것이 간단하고 유일한 길이다.”라며, 전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도 아니다.” 하고 몰아세웠다.

한나라당은 남측 군대가 북한의 “도발”에 “소극 대응”했다고 맹공을 퍼부었다. 남측 해군이 북한 경비정을 격침하지 못한 것과 공군이 교전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소극 대응”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남측 군대가 강경 대응을 했더라면 교전이 확대될 가능성이 농후했다. 실제 국방부는 교전 당시 북한이 함대함 스틱스 미사일의 레이더를 가동하기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1999년 서해교전

다. 레이더 가동은 미사일 발사의 전 단계다. 한나라당과 우파들이 군의 “소극 대응”을 비판한 것은 전쟁을 부추기는 것이다. 우파들의 광기 어린 강경 물이 주장에 온몸이 오싹해진다.

한나라당의 김용갑은 “친북 좌파[김대중]에 국군 통수권을 맡길 수 없다.”며 김대중의 ‘햇볕 정책’을 공격했다. 그러자 김대중은 우파의 비난을 의식해 “햇볕 정책은 공산당에 대한 유화책이나 패배주의적 정책이 아니다.” 하고 강조했다. “북한이 또다시 군사력으로 우리에게 피해를 주려 한다면 북한도 아주 큰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사실, 김대중 정부의 “햇볕 정책”은 군사적 충동을 결코 배제하지 않는다. 김대중은 한쪽에서는 남북 화해와 협력을 표방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군비 증강과 한-미-일 대북 압박 공조를 추구하고 있다.

김대중은 국민의 관심이 온통 월드컵에 쏠리는 틈을 타 F-15K 전투기 도입(4조 3천억 원 규모)을 결정했다. 김대중이 F-15K를 도입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한 것은 미국과의 관계였다. 지난 3월에는 한국전쟁 이래 최대 규모로 한미연합훈련을 실시했다. 교전이 나기 얼마 전에도 남한의 해군 2함대와 미 해군 구축함이 서해상에서 공동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서해교전이 “북한의 의도적 도발”이냐 아니면 “우발적 사건”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는 사태의 진상을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런데도 미국 국무부 장관 콜린 파월은 이번 사건을 “북한 군사력의 고의적 도발”이라고 규정했다. 미국으로서는 북한을 압박할 절호의 구실을 찾은 셈이다. 남한의 냉전 우파들도 “북한의 계획적 도발”이라고 못을 박았다. 김대중 정부는 처음에는 “우발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가 우파들의 맹공에 밀려 말을 바꿨다.

사태의 진상이 어찌 되었건 간에, 이런 기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더한층 고조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교전 발생이틀 만에 합동참모본부는 작전 지침을 변

경했다. 합참의 작전 지침 변경은 남북 간의 교전 가능성이 더한층 커지게 됐음을 뜻한다. “완충적 단계를 생략하고 곧바로 사격한다는 것은 우발적 충돌이 확대돼 전면전에 버금가는 위기로 치달을 개연성이 크다.”(<한겨레> 7월 3일치.) 미국은 서해교전 직후 대북 특사 파견 제안을 철회했다. 남한 정부는 대북 지원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턱없이 부족했던 정부 차원의 대북 쌀 지원을 중단했다.

미국의 패권전쟁과 한반도 위기

언론은 서해교전 발발 직후 북미 관계나 남북 관계가 그다지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왜 북한이 선제 공격을 감행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북한이 판을 깬 이유를 모르겠다는 투다. 과연 그럴까?

서해교전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평화가 무르익어 가던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 아니었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지속돼 온 한반도의 긴장을 반영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조지 W 부시 정부가 등장한 이래 한반도에서는 긴장이 고조돼 왔다. 한반도의 긴장 고조는 미국의 세계 패권 장악을 위한 전쟁 물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돌이켜 보면, 1953년 정전협정 발효 이후 발생한 남한(그리고 미국)과 북한 간 주요 군사 충돌은 대부분 미국의 패권 전쟁 시기와 일치했다. 모두 일곱 번의 주요한 군사 충돌이 있었다. 1967~1969년 사이에 다섯 번의 충돌이 발생했다. 이 때는 베트남 전쟁이 절정에 이른 때였다. 또, 남한 군대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시기와 일치했다. 1976년 판문점 공동경비 구역 내에서 발생한 소위 ‘미루나무 살인’ 사건은 베트남 전쟁에서 비롯한 한반도 긴 장 고

조의 후유증이었다. 1999년 6월 서해교전은 나토(NATO)가 발칸 반도에서 세르비아를 공습한 직후에 터졌다.

지난 1월에 조지 W 부시는 이라크·이란·북한을 ‘악의 축’으로 낙인찍었다. 뒤이어 7개 나라들(러시아·중국·이라크·이란·북한·시리아·리비아)에 대한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이른바 ‘핵 테세 검토’). 최근 <뉴욕 타임스>에 실린 미군의 기밀 문서를 보면, 미국은 25만 명의 군대를 동원해 이라크를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 임박했다는 것은 북한에게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다.

1991년 2차 걸프 전쟁이 끝난 직후인 1991년 3월에도 주한 미군 사령관 로버트 라스카시는 이라크 전쟁은 북한 전쟁의 예행 연습임을 강력하게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첫 단계로 북한에 핵 시설 사찰과 해체를 요구했다. 1991년부터 북미 핵 협상이 시작됐다. 1994년에 이른바 북한 핵 위기는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미국 국방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페리는 북한에 핵 폭탄 투하를 고려했다.

미국의 위선적 대북압박

미국은 서해교전을 이유로 7월 1일에 특사 파견 제안을 취소했다. 미국은 북한이 대화할 의지가 없다고 국제적 여론 물이를 벌일 명분을 찾은 셈이다. 그러나 그동안 정작 대화를 거부한 쪽은 미국이었다. 셀리그 해리스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부시 정부는 내부적으로 북

한 관련 미국의 정책
목표 설정을 둘러싼 논

쟁만 거둬들였다”고 지적했다.(〈한겨레〉 7월 6일치.)

여기에서 지난 6월에 미국은 8월로 예정된 북한 경수로 콘크리트 타설 공사 전에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 수용을 약속해야 한다고 압력을 넣고 있었다. 지난 4월 초에 방북한 임동원도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북한에 종용했다. 핵 사찰 수용, 미사일 개발과 수출 금지, 채래식 무기 감축 등이 서해교전 발발 하루 전인 6월 28일에 미국이 북한 특사 파견을 통해 다룰 의제였다. 이것은 북한으로서는 순순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구다. 왜냐하면 미국의 요구는 약소국 북한의 주권을 짓밟는 오만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부시의 강압적 대북 요구는 과거에 미국과 북한이 맺은 합의를 깬 무시하는 것이다. 1994년 북한 핵 위기는 북한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미국은 그 대가로 약간의 물질적 보상을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반면, 북한은 여러 차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은 바 있다. 미국은 1999년 5월에 금창리 지하 시설을 현장 방문했지만 “핵 시설 의혹 없음!”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압박을 완화하지 않았다.

그 다음은 북한의 미사일이었다. 북한이 1998년 8월 31일에 광명성(인공위성을 탑재한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국은 즉각 이를 문제 삼았다. 1999년 9월에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 발사 보류를 미국에 약속했다. 그 대가로 미국은 식량 원조, 각종 경제 제재 조치를 해제, 교역 및 금융 문제의 일부 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그러나 미국은 약속을 지키는커녕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를 문제 삼았다. 이

것은 순전한 위선이다. 미국은 세계 최강의 핵 전력(중국의 3백배)과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다. 미국의 군사력은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비를 합친 것보다 3배가 많다. 또, 북한의 군사력보다 거의 1백배나 많다. 2000년 미국 전체 예산 5천5백50억 달러 가운데 2천8백10억 달러(51퍼센트)가 군사비에 지출됐다. 올해 미국 정부의 군비 지출은 3천9백억 달러다. 이런 나라가 군사 예산이 22~30억 달러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말하는 것은 억지다.

미국이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과장하는 진정한 이유는 잠재적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중국은 극동에서 미국의 지배력을 위협하기 시작했다.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에 대해 의견이 갈려 있다. 미국의 중국 정책은 경제적 협력과 군사적 경쟁 사이에서 동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 부시 정부 내에서 중국을 “전략적 경쟁자”로 여기는 세력들(이른바 “강경파”)이 점점 득세하고 있는 듯하다. 따라서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군을 남한에 주둔하게 할 수 있는 좋은 명분이다.

이라크 다음차례

북한이 선제 공격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북한이 서해교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사건의 경위가 어떠 하든 우리 측의 병사 다수가 사상을 입게 된 과정에서 북측이 선제 공격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 점에 관한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하고 논평했다.(7월 5일 ‘서해교전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중에서.)

그러나 북한이 서해에서 선제 공격을 했다는 치더라도 사태의 근본 원인을 제공한 것은 한-미 대북 압박이다.

예를 들어 보자. 강파가 한 시민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시민이

강파의 요구를 거부했다. 강파는 위협의 수위를 더욱 높였다. 시민은 정당방위 차원에서 강파에게 주먹을 날렸다. 그러자 강파는 아예 시민을 죽이려 했다. 과연 이 상황에서 시민이 먼저 강파에게 주먹을 휘두른 것이 문제인가 아니면 멀쩡한 시민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위협한 강파가 문제인가.

이것이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미국이라는 강파가 북한을 상대로 ‘너네 땅에 뭘가 있는 게 분명하니까 사찰을 받아라’고 협박하고 있다. 한편 싸움이 벌어질 객관적 분위기는 미국이 조성한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의 대북 압박을 분명하게 반대해야 한다. 북한의 선제 공격을 이유로 북한에 책임을 묻는 것으로는 한반도의 긴장을 해결할 수 없다.

전국학생협의회(전학협)는 평화주의적 관점에서 “모든 전쟁을 반대한다”는 태도를 취했다. 전학협은 남한과 북한 모두를 양비론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나 전학협은 미국이 한반도 위기의 핵심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 남한과 북한이 대립하는 듯하지만, 남한의 뒤에는 초강대국 미국이 버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을 양비론적으로 반대하면 위기의 진정한 근원과 맞서 싸우기(반미 반제국주의 투쟁)가 어렵다. 양비론적 평화주의는 종이 우산처럼 비가 오면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그 동안 미국은 “4강이 교차하는 이 지역에서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하면 러시아·중국·일본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미국의 능력이 높아진다.”(미 의회 조사국)고 보고 동아시아에서 자신의 패권을 재천명할 수단이 동아시아판 이라크로 북한을 지목해 왔다. 미국이 이라크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그 다음 차례는 북한이 될 것이다.

미국이 이라크를 거쳐 한반도로 몰고 올 전쟁의 광기를 꺾어 버려야 한다. 지금이 그럴 때다. 강력한 반전 운동을 실질적으로 건설해야 한다. 

북한 식량난과 난민



이승웅

좋은벗들
평화인권 부장

[편집자 주] 이 글은 지난 7월 초 '다함께'가 주최한 여름 토론회에서 "좋은벗들"의 이승웅 씨가 한 강연을 글로 옮긴 것이다.

저는 1997년 가을부터 중국 연변에서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했습니다. 두만강이나 압록강변을 다니면서 난민들을 돕는 활동들을 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여름에 중국 정보 기관에 잡혀서 감옥살이를 하다가 작년 여름에 추방당했습니다. 저는 장길수 가족 사건 바로 직전에 국내에 들어왔고 지금은 '좋은벗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좋은벗들이 지금까지 지원한 난민들 숫자는 2만 2천 명 정도입니다. 그 중 수천 명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북한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벗들은 북한 난민들을 만나 "도대체 얼마나 어려우냐, 당신 가족들 중에서 식량난 이후에 굶어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50명을 조사한 뒤 1백 명을 더 조사해보고 또 2백 명을 하고 점차 숫자를 늘려 봤습니다. 그 수가 3백 명, 4백 명, 1천 명이 되고 1천8백 명이 됐습니다.

북한의 식량난은 1992~1994년경에 배급이 끊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식량난으로 죽은 사람을 가족당 사망률로 계산해 봤더니 사망률이 28퍼센트였습니다. 당시 북한 인구를 2천5백만 명으로 추산했습니다. 군인 1백20만 명, 당원 3백만 명, 농민—군인, 농민, 당원 들은 그래도 굶어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을 제외한 나머지 전체 인구에서 가족 사망률 28퍼센트를 계산하니 3백만 명에서 3백5십만 명이 굶어죽거나 영양 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좋은벗들은 그 내용을 1998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욕도 참 많이 먹었습니다. '반북 단체'로 낙인찍히기도 했지요. 좌익 집단에서는 '의도적으로 북한을 비판하고, 북한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걸 발표한 것 아니냐' 또는 '적은 인원이 죽었는데 수치를 너무 부풀려서 발표한 것 아니냐'고 비판하는 등 수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어쨌든 좋은벗들은 표본조사를 통해 '3백만 명 아사설'을 제일 먼저 발표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아사자가 최소 2백만 명 이상일 것으로 봅니다. 2백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것은 북한 정부도 인정했습니다.

좋은벗들은 두 번째 조사 작업을 했습니다. 2천4백여 개 마을을 직접 조사해 1999년에 조사 결과를 발표

했는데, 중국 전역에 숨어 사는 탈북자가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탈북자 숫자에 대해서 정부와 <조선일보>는 5만 명, 대부분 민간 단체는 10~20만 명 정도로 추산합니다.

북한 식량난

북한 식량난이 저희들에게 처음 알려진 것은 1995~1996년입니다. 대홍수로 농작물 수확이 어려워져서 국제 사회에 지원을 호소하면서 처음으로 북한 식량난이 알려졌습니다. 초기에는 북한 식량난이 일어난 이유가 1995~1996년 홍수, 1997년 가뭄, 1998년 한파 등 자연 재해 때문인 것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많은 난민들과 인터뷰한 결과, 북한 식량난은 1970년대 중·후반, 그리고 1980년대 들어서 서서히 북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북한에서 남한의 임수경 양도 참가한 평양 청년학생축전 같은 행사들이 많이 열리고 또 김일성, 김정일 부자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많은 동상을 세우면서 외화를 많이 탕진했습니다. 경제난이 서서히 심해지다가 결국 1992~1994년경에 전체 식량이 다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국가에 양식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양식이 없는데 공장이 돌아간다? 그것은 순거짓말입니다. 양식이 없지만 군대가 제대로 군사 훈련을 할 것이다? 그것도 어불성설입니다.

양식이 없다는 것은 산업 기반과 사회 간접 자본 등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도덕, 관습, 예의범절까지 다 무너지는 것을 뜻합니다. 부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몇 년 간 고생한다면 그 때도 과연 부부의 사랑이 남아있을까요? 북한에서 1992년부터 시작된 식량난이 십 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2천만 주민 중 현재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사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북한은 1992~1994년에 서서히 모든 것이 다 끊어지고, 1995~1996년에 가전 제품·집안 폐물 다 팔고, 1997년에 북한 주민들이 먹을 것을 찾기 위해 중국으로 넘어 갑니다.

제가 만난 한 난민은 북한에서 함경북도 청진시의 7층짜리 아파트에 살았는데, 그는 중국으로 떠나오기 전날 7층짜리 아파트를 두부 7모와 바퀴먹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니, 집값이 얼마나 싸길래 두부 7모와 바

겪먹을 수 있냐고 생각하시겠지만, 북한 현실이 그렇습니다.

북한 아이들이 영양 결핍 때문에 키가 점차 줄어들어서 예전에는 군 면제 신장 기준이 1백50센티미터이었는데 지금은 145센티미터입니다. 중국에서 북한에서 갓 넘어온 열아홉·스무살 먹은 청소년들을 만나면 한국 초등학교생 정도 키밖에 안 됩니다.

북한은 전쟁 능력을 거의 다 상실했습니다. 한국 비행기가 비행 훈련할 때 북한의 비행기는 기름이 없어서 미처 날아오르지도 못할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함께 겪고 있습니다. 북한 전역에 전기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탄광에서 석탄을 캐 연료로 사용하는데 전기 공급이 안 되니까 탄광에서 물을 뿜 수가 없습니다. 그 동안 두만강 근처에 있는 북부 탄전 대부분이 물에 잠겨서 석탄을 캐내지 못합니다. 이제 석탄을 캐낼 수가 없으니까 발전소도 돌릴 수 없어 전기난이 더 심각해질 것입니다.

또 북한의 기차 대부분은 전기로 운행되니까 교통도 마비된 상태입니다. 전화·전보는 말할 것도 없고 편지 하나 보내면 거의 보름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 제일 끝까지 가는 데 5~6시간이면 될 것을 전기난이 아주 심각할 때는 보름에서 20일 정도 걸리기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통일을 안 하면 모를까 통일 뒤 이 모든 것들을 다 부담해야 합니다. 식량난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불어날 통일 비용을 지금부터 막지 못하면 끝끝내 우리

가 감당하지 못할 상황에 놓이게 될 거라고 봅니다. 북한 전역에 사회 간접 자본을 투자해야 하고 산업 기반들을 모두 다시 일으켜야 합니다.

중국 내 북한난민의 삶

중국으로 간 북한 난민은 처음에 ‘북한은 지옥이고 중국은 천국’이라 생각하면서 중국 땅에서 살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연변 같은 곳에는 한국 문화가 있고 TV를 통해 처음으로 접하는 한국 가요, 연예인들, 한국 정치의 자유로움, 대학생들의 자유로운 학교 활동을 보면서 급속히 한국을 동경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국 땅에서 살고자 하는 욕구가 많이 생깁니다.

굶어죽지 않으려고 중국에 넘어온 사람들이 여권 없이 몰래 국경을 넘어 들어왔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이 사람들을 ‘불법 입국자’, ‘불법 체류자’로 부릅니다. 그런데 중국과 북한 사이에는 범죄인들을 본국으로 송환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규정에 따라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보냅니다.

북한 주민은 가족이 굶어 죽어 마지막 수단으로 두만강을 넘는데 북한 정부는 이 사람들이 자기만의 안락을 위해 조국을 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갔으며 ‘정치 배신자’로 간주합니다. 북한 정부는 이 사람들을 굉장히 엄하게 처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찰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쨌든 억울함을 감내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고용주인 중국 사람이 ‘우리 집에 와서 농사를 지어달라. 대신 집에서 먹고 자게 해주고 한 달 뒤 얼마 주겠다’ 하고 약속합니다. 한 달이 지나면 ‘이번 달에는 돈이 없으니 다음 달에 주겠다’라며 3개월 내지 6개월 뒤에 준다고 계속 약속을 늦춥니다. 6개월이 다 됐을 때 월급을 달라고 하면 아주 적은 금액을 준다든지 심지어는 하나도 안 주고 쫓아 버립니다. 더 독한 사람은 중국 공안에 신고해 버립니다.

여자들은 인신매매 당하는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탈북자 수가 30만 명이라는 조사를 했을 때 여성의 비율이 70퍼센트 정도 됐습니다. 그러니까 난민들 중 20~21만 명 정도가 여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왜 인신매매를 당할까요? 중국도 사회주의 체제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서서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 시절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없었는데 자본주의로 넘어오면서 여자들은 찾집 다방, 노래방 이런 데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통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소도시 여자들은 다 북경이나 상해 대도시로 몰려갑니다. 시골의 젊은 여자들은 중소도시의 식당, 음식점 이런 데로 몰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시골에는 젊은 여자들이 귀하고 남자들은 결혼을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 공백을 북한 여성들이 몰래 와서 메우는 것입니다.

한편 중국에서 시골의 무능력한 남자들이 북한 여자들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무능력한 정도면 괜찮죠. 주로 술주정뱅이, 노름꾼, 신체 불구자, 정신병자, 돈만 많은 홀아비들이 북한 여자들을 삽니다. 북한에서 좋은 대학 나와서 평양에서 외국인 안내 하던 여자들도 식량난 이후 먹고 살 길이 없자 중국으로 넘어왔습니다. 이런 여자들조차 안전하게 살기 위해 술주정뱅이한테 팔려서 매일밤 성적 노리개가 돼 시달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공안이 그 마을을 덮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탈북 여성들은 전부 산으로 들로 도망가고 집을 비웁니다. 한밤중에 공안들이 자주 들이닥치기 때문에 한겨울 밤에도 산에 올라가서 비스듬하게 움막을 판

다음 그 안에서 벌벌 떨다가 새벽녘에 들어와서 잠시 눈 붙입니다. 낮에는 주로 집 옷장 안에 숨어있습니다. 그렇게 탈북자들은 숨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청소년들은 중국에 가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매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돈 생기면 음식 사먹고 못 받으면 사정사정해서 얻어먹습니다. 잠은 여름에는 주로 놀이터, 강변, 노천, 다리 밑에서 자고 겨울에는 아파트 보일러실, 공공 목욕탕 보일러실, 병원 응급실, 밤새 영업하는 비디오파에서 잡니다. 그러다가 중국 깡패 조직하고 붙으면 돌격 대원으로, 행동 대원으로 뛰어나가 싸움질하고... 중국에 있는 탈북자들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북한 난민문제의 해결

그 동안 민간 단체들은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인정하라고 요구해 왔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탈북자가 자꾸 생기면 정권이 위협받는다며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이 사람들을 끝까지 못나가게 막고 넘어간 사람들을 돌려보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처지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꾸 중국으로 넘어오고 이 사람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난민 지위를 주면 북한 주민 전체가 중국으로 넘어올지 모르고, 이들이 중국에서 사는 것을 엄청난 부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탈북자들에게 난민

지위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에 장길수 가족 사건이 생기고 올헤처럼 스페인 대사관 진입 사건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 '기획망명'에 대해 찬반 양론이 많은데, 어쨌든 탈북자들의 존재를 국제적으로 알린 것은 굉장히 큰 의의가 있습니다. 한편 그 모든 사람들을 한국으로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몰래 중국 신분증을 사고, 뒷돈 쥐서 중국 경찰에게 중국 공민증 사고, 중국 여권 만들어서 한국에 초창장 받아서 데려오는 일이기 때문에 한 사람을 데려오는 데 굉장히 많은 돈이 듭니다. 또 그 사람들을 중국 경찰에게서 지켜내려면 수많은 활동가들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획망명'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벗들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북한 식량난 문제가 해결돼야만 탈북 난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땅에 양식이 남아돌면 중국으로 넘어가지도 않을 뿐더러 이미 중국에 와 있는 사람들도 그런 비인간적인 대접에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한국 정부와 국제 단체, 미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 정부들도 대대적으로 식량을 지원해야 합니다. 북한 식량난 지원을 위해서 대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번째로 중요한 것은 북한도 변해야 한

다는 것입니다. 중국 땅에 넘어왔다가 돌아 가면 처벌받는다든 두려움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면, 북한에 양식이 있어도 '도저히 그런 통제된 사회 속에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게 돼 역시 북한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북한 외부에서는 북한 식량난을 지원하고 북한 정부는 개혁·개방해서 주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을 처벌하지 않고 관대하게 다시 받아들이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도 어려운 시기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넘어온 탈북자들을 정치적 난민과 같은 수준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부담이 굉장히 크다면 적어도 중국 땅에서 임시로 사는 것은 허락해야 합니다.

중국 땅에 팔려왔든 자의로 결혼을 했던 이미 결혼한 사람들에게 국제 결혼을 허용하고 중국인민으로 받아들이려는 노력들을 해야만 식량난과 탈북 난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대북 지원하면 안 되고 먼저 북한과 김정일이 빨리 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시각입니다. 식량난의 모든 책임이 김정일 정권에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양식이 없어서 군사 훈련을 수행할 능력까지 상실한 정권이 자국민들을 다 구해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되, 북한 정부가 식량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현실적인 태도입니다.

북한 정권이 붕괴하면 북한 전역은 내분에 들어가게 되고 내분은 남한에도 굉장히 큰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 같은 외세의 개입까지 불려들일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질지도 모릅니다. 모든 책임이 김정일에게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김정일이 있기 때문에 북한이 어쨌든 내분에 빠져들지 않고 동북아에서 어느 정도 나름의 균형을 잡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김정일 정권을 붕괴시키는 것은 한반도가 공멸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북한을 지원하고 북한 정권도 변화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방법으로 식량난과 탈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족대책위는 잘못된 전술?

정진희



여성노동자

가족대책위가 일부 페미니스트들의 비판 대상에 올랐다. 지난 6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는 노조의 “가족주의 전술”을 비판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5월에는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 활동가 정주연이 《사회진보연대》에 가대위 투쟁을 비판하는 글을 기고했다.

그는 가대위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억압에 이용될 수 있다고 비판한다. “자본주의적 가족 모델과 가족 임금 이데올로기의 반여성적이고 반노동자적인 점을 간과”해 그것을 “합리화”시켜 줄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대로라면 가족대책위는 존재하지 말았어야 했다. 발전 파업, 철도 파업, 태광산업 파업, 효성 파업 등에서 가족대책위는 눈부신 활약을 했지만 결국 자신을 억압하는 데 이용됐을 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족들이 나서는 투쟁이 가족 제도를 정당화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얘기다. 이것은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파업이 착취를 정당화한다는 말이나 마찬가지다. 임금 인상 파업도 임금 노동자 체는 인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는 노조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수용해 활

용하는 가대위는 결국 자본에 이롭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것은 아주 간단한 사실조차 설명하지 못한다. 가대위가 결국 자본에 이롭다면 왜 자본가들은 가대위를 그토록 탄압했는가?

이런 혼란은 그가 모든 남성이 여성을 지배한다는 가부장제 이론과 모종의 계급 이론을 절충하려는 데서 비롯한다. 그러나 가부장제 이론은 어떤 계급 분석도 거부하기 때문에 결국 그의 주장은 가부장제 이론에 완전히 지배당하고 있다.

가부장제 이론에 따르면, 모든 남성이 여성 억압에서 이득을 얻는다. 가족은 자본가와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유지하는 음모다. 그는 “여성에 대한 착취를 조직하는 과정에서 자본과 남성 임금 노동자들이 공모를 이룬”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것을 입증하는 예로 가족 임금제를 들고 있다. 남성 노동자들은 가족 임금 — 한 명의 노동자만이 아니라 가족 전체가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임금 — 을 받기 때문에 여성을 일자리에서 쫓아내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데 찬성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즐겨 하는 얘기다. 하지만 이것은 이데올로기만 볼 뿐 현실을 못 보는 얘기다. 오늘날 노동자들 가운데 ‘가족 임금’을 받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가족 전체가 먹고 살만큼 충분한 임금을 받는 노동자는 극소수의 숙련 노동자들 뿐이다.

“역사적으로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부정한 결합이 있었[다]”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 가족임금제 요구가 처음 등장한 영국에서 19세기 내내 ‘가족 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았던 남성 노동자는 극소수에 불과했다. 많은 노동계급 여성들이 부족한 소득을 메우기 위해 가정 밖에서 노동을 했다.

이런 추세는 19세기 상반기에 보호법 — 특정 산업에서 어린이와 여성의 취업을 금지하거나 노동시간을 줄이는 법 — 이 통과된 뒤에도 바뀌지 않았다.

19세기 기혼 여성의 노동을 연구한 영국 역사가 클레멘티나 블랙에 따르면, 기혼 여성들은 많은 산업에서 주요 노동력을 구성했다. 1860년대 섬유 산업 노동력의 3분의 1이 여성이었다.

노동자들이 가족임금제를 요구한 것은 당시 영국 노동계급이 처한 상황과 연관돼 있다. 산업 혁명의 결과, 가족 성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져 장시간 공장에서 일하게 되면서 노동계급 가족은 해체 일보 직전이었다. 너댓살 어린아이들까지 하루 12~16시간씩, 주말도 없이 일했다. 영유아 사망률, 산모 사망률이 증가했다. 끔찍한 주거 환경, 형편없는 식사, 빈약한 의료 시설 등으로 노동계급의 삶은 매우 비참했다.

빈곤으로 노인이나 아이들은 버려지기 일쑤였다. 돌봐 줄 사람이 없는 사람은 구빈원에나 가야 했다. 구빈원의 조건은 끔찍해서 노동자들은 구빈원에 보내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했다. 당시 어떤 사회 복지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가족의 해체는 노동계급에게 커다란 재앙으로 여겨졌다.

노동계급은 공장 노동의 끔찍한 조건에서 가족을 보호하기를 원했다. 가족임금제는 노동계급 전체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제기됐다. 이것은 자본가들이 가족 제도를 재확립하려는 시도와 맞물려 일어났다. 자본가들은 노동계급 가족의 해체로 노동력 공급이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 안정적인 노동력 재생산을 위해 가족 제도를 다시 확립할 필요가 생겼다.

이처럼 가족임금제는 노동계급과 자본가들의 서로 다른 이해가 맞물리면서 등장했다. 가부장적 공모 이론은 이런 복잡한 현실을 설명하지 못한다. 그것은 또한 여성에 대한 모욕이다. 여성은 가부장에 속기 쉬운

존재로 취급당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을 역사의 주체가 아니라 객체로 취급하는 것이다.

아니나다를까 정주연은 가대위 여성들을 한낱 ‘남성 중심’의 노조에 이용당하는 희생양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는 발전 노조 가대위 투쟁을 이렇게 평가했다. “사유화 반대라는 정치적 투쟁 문구를 내걸고 있다고 해도 가대위의 투쟁은 온정주의에 호소하는 방식으로 투쟁의 국면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가 가대위 활동을 이렇게 터무니없게 폄하하는 데는 노동 운동에 대한 뿌리 깊은 불신이 깔려 있다. 물론 이런 불신에는 어느 정도 이해할만한 측면이 있다. 많은 노조가 여성들의 요구에 무관심하거나 때때로 여성 차별에 동조해 온 게 사실이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식당 여성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는 데 동의했고 그 사건을 다룬 영상물(“밥·꽃·양”) 상영을 가로막은 게 대표적인 사례다. 많은 남성 노동자들이 여성을 비하하는 언행을 일삼곤 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주연의 가대위 비판이 정당해지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모든 비판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종로에서 뽕 맛고 한강에서 화풀이해서는 안 된다.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노동 운동을 싸잡아서 비판하곤 하는데 이것은 운동의 성장과 발전보다는 종종 분열을 증폭시킨다.

많은 노조가 파업 때 가대위를 조직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전술이다. 정부와 기업주는 파업이 일어나면 흔히 가족을 협박해 파업 노동자들을 분열시키곤 하는데, 이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 가족을 조직하는 것이다. 남편이 파업할 때 아내는 집에서 애나 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여성을 무시하는 태도다.

가대위 투쟁은 여성 차별 이데올로기를 강화하기는 커녕 도리어 여성에 대한 고정 관념을 깨뜨린다. 발전 파업 가대위 여성들을 보라. 누가 이들을 보고 여자는 나약하고 수동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발전 가대위 여성들은 단지 아내와 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들은 무엇보다 투사였다. 가대위 여성들의 놀라운 용기와 투지는 발전 남성 노동자들뿐 아니라 다른 부문의 남성 노동자들에게도 커다란 인상을 남겼다.

남성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 있는 여성 차별 의식을 깨뜨리는 것은 이렇게 단결해 싸우는 과정을 통해서다. 정주연은 가대위의 이런 장점을 깡그리 무시하고 시종일관 냉소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것은 여성 억압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은 필자연정 현실을 바꾸지는 못한다. 노동계급의 분리를 조장하는 가부장제 이론을 수용하는 한, 그의 무기력은 계속될 것이다. 

학생들이 징계 위협을 받고 있다

김태훈

김대중 정부는 ‘국립대학 발전 계획’을 수립하면서 “국립대학 체제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립대학 발전 계획’의 최초 제목이 ‘국립대학 구조조정 계획’이었다는 사실은 별로 알려져 있지 않다. 박병덕 전북대 교수는 이에 대해 “대학 구성원들의 반발을 의식해서 이름만 발전 계획이라고 바꿨을 뿐… 결국 국립대학에 시장 경쟁 체제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립대학의 대표격인 서울대에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시작된 것은 1998년이었다.

시장 개혁의 결과

결과는 참혹했다. 시장 개혁은 기초 학문을 파괴했다. BK21 지원금의 90퍼센트가 이공계에 집중됐다. 인문계는 아예 수혜 대상에서 배제됐다.

정부는 “경쟁력 없는” 학과 교수들을 빼내어 “경쟁력 있는” 학과로 이적시켰다. 작년에 물리교육학과 교수는 단 1명이었다. 나머지 교수들이 모두 자연대로 옮긴 것이다. 그 결과 개설 강좌가 31개에서 12개로 줄었고, 그마저 절반은 시간 강사로 대체됐다. 혼자서 무리한 수업을 강행하던 그 교수는 과로로 쓰러졌다. 분노한 학생들은 정부를 상대로 수업권을 침해

한 것에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교육부와 서울대학교는 모집단위 광역화를 “자신의 적성과 재능을 다각적으로 재발견하고 관련 전공 영역을 탐색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도입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학생들이 인기 학과에 몰릴 것을 알면서도 교수와 기자제 확충, 강의실 증축 등의 재원 마련을 하지 않았다. 성적순으로 전공 인원을 제한했다. 지난해 서울대 총학생회장 장종오 씨는 교육부의 모집단위 광역화 정책을 이렇게 비판했다. “1·2학년 동안 여러 학문을 두루 공부하며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인기 전공에 진입하기 위해 특정 교과목 재수강을 거듭한다. 보다 높은 학점을 따기 위해서 학과에서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 교과목만 이수한 후, 학점을 잘 준다고 소문난 교양 과목을 쫓아다니기 십상이다.”

경쟁 강화가 학업 능력을 높인 것도 아니다. “비인기 학과는 다른 전공에 떨어진 학생을 2차 지원에서 받기 위해 아예 기존 교과목을 폐지해 버려, 이 전공에 진입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인 전공에 대한 이해가

서울대 학생들의 집회 모습



저도 없는 경우가 허다했다.”

서울대는 올해부터 아예 노골적으로 이공계 신입생들을 상대로 ‘우열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80년대 비인간적 입시 제도의 상징인 ‘우열반’이 21세기에 부활한 것이다.

시장 개혁 이후 교육의 질은 도리어 떨어졌다. 서울대 전임 교원 수는 1999년부터 2001년까지 3년간 10명이 줄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 학생 정원은 12.7퍼센트 늘어났다. 그 결과, 교수 1인당 학생 비율이 21.9명으로 10년 전의 20.8명보다 오히려 늘었다.

이런 판국에 서울대는 등록금을 계속 인상했다. 올해 신입생 등록금은 125퍼센트가 올라, 이공계 등록금은 2백만 원에 육박한다. 계절학기 등록금은 60~1백9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내년부터는 등록금 책정이 아예 자율화된다.

저항

3월 28일, 학생들은 “등록금 인상 반대, 모집단위 광역화 철폐”를 요구하며 총장실을 점거했다. 앞서 열린 비상학생총회에 무려 1천7백여 명이 모일 정도로 학생들의 분노는 어마어마했다.

학생들이 점거하는 도중 우연히 발견한 문서에는 서울대 총장 이기준의 비리가 낱알이 적혀 있었다. 이기준은 한 해 관공비를 무려 4억5천만 원이나 썼다. 심지어 이발비와 승용차 인테리어 꾸미는 데도 학교 돈을 사용했다. 명절 때마다 정부 관료들에게 선물을 보낸 사실도 밝혀졌다. 그 가운데에는 국가정보원장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기준은 LG 계열사 사외이사로 일하면서 연구비 1억4천만 원을 받고도 공개하지 않았다. 학생들은 “구조조정을 앞장서 추진한 교육부의 심복” 퇴진 투쟁을 전개했다. 결국 이기준은 사퇴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곧바로 보복에 나섰다. 학생들이 시장 개혁에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면 본보기가 필요했다. 학교측은 총학생회 간부 4명을 징계했다. 징계 철회를 요구하며 2차 점거에 참여한 2백여 명은 형사 고발됐다. 반면에 이기준은 학생들이 여름 농활을 떠나는 분위기를 틈타, 특별 채용 형식으로 평교수로 복귀했다.

시장 개혁에 대한 서울대 학생들의 불만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대학본부 교육정책 불신임 투표에 1만 79명이 참여했다. 96퍼센트가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 비상학생총회가 성사된 것도 6년 만의 일이다.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1만 1천1백54명이 동참했다. 사범대 신입생들

은 집단 휴학원을 제출하고 전공 수업 참석을 거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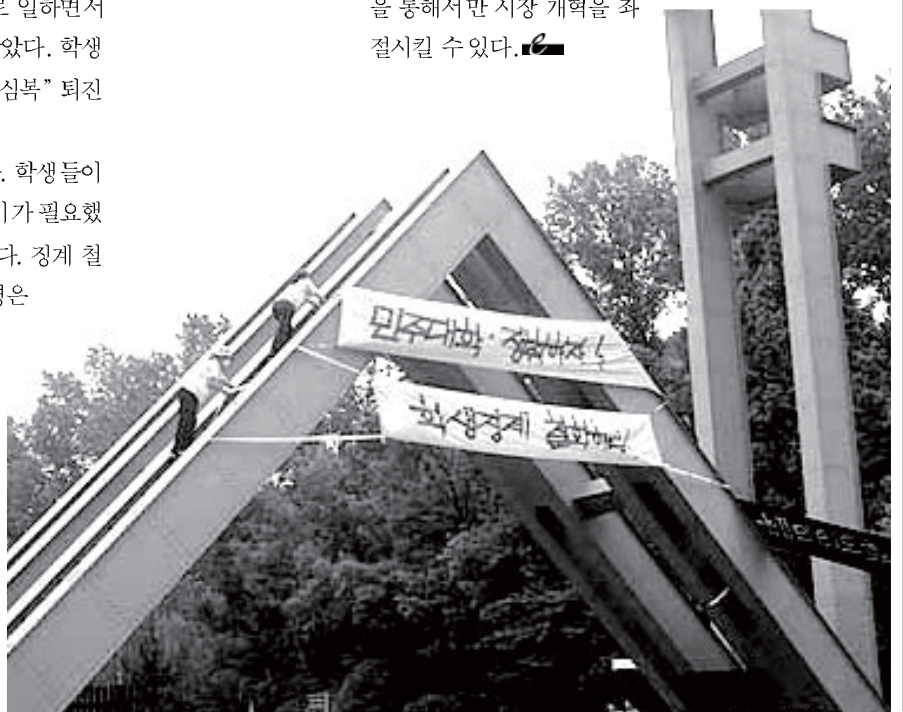
징계 문제에 대한 현 대학 본부의 태도가 워낙 강경하다 보니, 상당수 학생들은 차기 총장에 내정된 정운찬 교수에게 기대를 걸기도 한다. 정운찬이 민교협 소속이라 보니 그가 적어도 신자유주의자는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꽤 퍼져 있다.

그러나 정운찬은 “노동 시장은 좀 더 유연해져야” 하며 “구조 개혁을 하려면 한 순간의 고통은 참을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시장주의자다. 그는 재경부 금융발전심의회 위원장을 맡아 은행 구조조정을 주도하기도 했다. 그는 학생들의 징계도 지지했다. 점거 농성에 대해 “학생들의 의사 표현 방식은 크게 잘못된 것”이고, “명백히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학칙에 따른 조치를 통해 학내 질서가 유지돼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정운찬은 이기준의 시장 개혁을 그대로 이어받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그 동안 시장 개혁에 대한 저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과대 별로 시차를 두고 야금야금 구조조정을 시행했다. 모집단위 광역화는 5년여에 걸쳐 자연대, 인문대, 나머지 단과대 순으로 도입됐다.

따라서 시장 개혁에 반대하는 투쟁이 개별 단과대 투쟁으로 파편화해서는 곤란하다. 예컨대, 사범대 학생들의 투쟁에 인문대·사회대·공대 학생들이 무관심해선 안 된다. 교육에 시장 논리를 도입하는 것은 대다수 학생들의 교육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전체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동 투쟁

을 통해서만 시장 개혁을 좌절시킬 수 있다. 



유럽의 미래를 계획하기

툼 베헌

영국
반자본주의 활동가

아직도 이탈리아 전역에서는 작년 제노바 반자본주의 시위의 반향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지난달 피렌체에서 영화 <청년 카를로 줄리아니>(Carlo Giuliani ragazzo)가 처음 상영됐을 때도 여실히 드러났다. 그 영화는 경찰에게 살해당한 줄리아니의 마지막 하루를 다룬 다큐멘터리였다. 피렌체에서 가장 큰 극장을 가득 메운 2천여 명의 관객들은 감독에게 기립 박수를 보냈다.

오는 11월에 유럽사회포럼(ESF)을 개최할 도시인 피렌체에서 그 영화가 처음 상영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영화 상영 뒤에 열린 토론회에서 비토리오 아놀레토(작년 제노바 시위와 11월 유럽사회포럼의 주요 조직자 중 한 사람)는 유럽사회포럼에 사람들이 동원할 때 “제노바 정신”을 이용하라고 요청했다. 즉, 주로 급진적 사상을 가진 세력들이 폭넓게 연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럽사회포럼에 관한 결정들 대부분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내려지겠지만, 더 중요한 문제는 피렌체 현장에서 조직하는 것이다. 피렌체사회포럼(FSF)은 작년 7월 제노바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자생적으로 결성했다. 경찰 폭력에 분노한 그들은 이에 항의하고 싶어했다. 여섯 명의 피렌체사회포럼 대변인 중 한 명인 사라 노첸티니는 “재빨리 전화를 돌리는 것만으로도 족했으며, 사실상 자생적인 시위에 1만 명이나 참가했다.”고 말한다. 그 뒤 상설 기구가 만들어졌고 피렌체사회포럼은 지역 정치 생활의 일부가 됐다. 예컨대, 올해 1월에 시위를 조직하려 한 대학 강사들은 피렌체사회포럼의 도움을 받았다. 약 1만 5천 명이 거리에서 시위 행진을 했다. 4월에 피렌체사회포럼은 총파업을 지지하는 지역 시위에 참가했다. 그들은 임시직 노동자들

의 고용 불안을 비판하면서 임시직 용역업체 밖에서 시위를 해서 지역 시위를 “일반화한” 파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피렌체사회포럼은 독자적인 세력으로 활동하면서 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이었다. 5월 인종차별적인 이민법 반대 시위에 1만 명이 참가한 것이 그 예다. 피렌체사회포럼은 이스라엘군이 예난을 공격했을 때 촛불 시위를 몇 차례 조직하기도 했다. 사라의 말처럼, 사람들이 노동당류의 정당들에 신물이 난 상황에서 “[사회포럼] 운동은 더 이상 [기성] 정당들의 말을 듣고 싶어하지 않는 청중들을 끌어들이 수 있다.”

사회 포럼 운동의 핵심적인 장점 중 하나는 노동조합 운동과 연계돼 있다는 점이다. 이탈리아 최대 노조 중 하나인 금속노조(FIOM)는 지금까지 1년 동안 [사회 포럼] 운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했다. FIOM의 피렌체

피렌체 유럽 사회 포럼

반자본주의 운동의 중요한 이정표
이 날을 기억하라

2002. 11.7~10
이탈리아 피렌체

누구의
유럽인가?



지부 간사인 마우로 푸소는 정기적으로 회의에 참가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다국적 기업들이 피렌체의 회사들을 인수할 때 노동자들은 헤고 등 세계화의 결과들을 직접 경험하게 된다.”, “사회 포럼들은 세계화를 비판적으로 논의하는 장소이며 우리가 연루하고 싶어하는 공간이다. 사회 포럼들에는 급진적인 비판들이 있고 그 덕분에 우리는 사물을 달리 볼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피렌체의 상황이 만사형통인 것은 아니다. 이탈리아판 신노동당이라 할 수 있는 좌파민주당(DS)은 녹색당, 기톨릭 정당과 함께 피렌체 시 의회를 장악한 채 공공 부문 사유화를 끊임없이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좌파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사회 포럼의 각종 회의에 참석해 그 운동의 정책들을 지지한다고 주장한다. 피렌체에서는 “세계 수준에서 생각하고 지방 수준에서 행동하라”는 구호가 매우 두드러진다. 최근에 시 의회는 시 소유의 약국들, 시영 우유 배급소, 많은 공공 임대 주택들을 사유화했다. 지금 시 의회는 박물관, 도서관, 대부분의 공공 임대 주택을 운영하기 위해 공-사 협력 관계를 구축하려 한다. 또, 관광세를 도입해 모든 은행 거래를 공-사 [협력] 기금 조성에 이용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그 기금의 일부는 지방의 대규모 호텔 경영자들이 관리하도록 돼 있다.

피렌체사회포럼은 앞으로 몇 달 동안 일련의 “유럽사회포럼 일요일”을 계획하고 있다. 그것은 일종의 축제 행렬이 노동계급 거주 지구들을 지나가면서 유럽사회포럼을 설명하는 행사다. 사라는 “포르투알레그레의 교훈은 그냥 논쟁만 하고 있을 게 아니라 정당도 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하고 덧붙였다.

더 중요한 이유들도 있다. FIOM의 마우로가 말하듯이 “누구든 참가할 수 있고 세계화에 대한 자기 견해를 밝힐 수 있다.” 사라는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유럽사회포럼에] 참가하지 않는다면, 모든 유럽 사람들이 처음으로 함께 모여 새로운 미래를 건설하는 방안을 토론하는 자리에 참석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것이다. 요즘에는 블레이나 베를루스코니 중 누가 집권하든 별다른 차이가 없는 듯하다. 피렌체에 와서 이 세계의 ‘블레이루스코니스’와 시장의 힘을 신봉하는 그들에게 항의하자.”

유럽사회포럼의 의제

엘릭스 캘리니코스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

4월 중순 벨기에 수도 브뤼셀에서는 유럽 전역에서 온 1백 50여 명의 활동가들이 모여 유럽사회포럼을 개최했다. 이것은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을 본뜬 것이다. 세계사회포럼은 세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운동의 거대한 집결이었다.

사람들은 내년에 다시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열릴 세계사회포럼을 준비하기 위해 올해 말에 지역 사회 포럼을 개최하는데 동의했다. 이번 브뤼셀 모임에는 아주 다양한 조직들이 참가했다. 여기에는 작년 7월 제노바 시위 이후 출현한 이탈리아 사회 포럼 운동, 유럽 각국에 지부를 두고 금융 투기에 반대하는 금융거래과제시민연합(ATTAC), 영국의 글로벌라이즈 리지스틴스(Globalise Resistance)와 반전동맹(Stop the War Coalition), 스페인의 세계저항운동(Movement for Global Resistance), 그리스의 2001 제노바 캠페인 같은 조직들도 포함된다.

정치 조직들 중에는 프랑스·포르투갈·오스트리아의 공산당들, 독일 사회민주당, 그리스 좌파연합(Coalition of the Left),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 등이 있었다. 올해 말에 유럽사회포럼은 이탈리아에서 열린다. 조직자들은 포럼이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채택한 “사회 운동의 호소”를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적인 토론과 논쟁,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공동의 공간”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선언[사회 운동의 호소]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신자유주의와 전쟁에 반대함을 명확히 했다. 브뤼셀에 온 많은 대표단들이 강조한 것은 노동조합, 평화운동, 동유럽과 발칸 반도의 활동가들을 포함해 포르투알레그레에 참석하지 않았던 유럽의 여러 세력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두 가지 논쟁이 있었다. 첫째는 정당과 국회의원들의 역할에 관한 것이었다. 브라질과 프랑스의 정치인들이 포르투알레그레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불쾌해 했다.

둘째는 많은 대표들, 특히 글로벌라이즈 리지스틴스와 SWP의 대표들은 이탈리아 주최측이 유럽사회포럼에서 주요 주제로 다루자고 제안한 쟁점들에 도전했다. 글로벌라이즈 리지스틴스와 SWP, 다른 대표단들은 [반자본주의] 운동이 세계적인 의식의 산물이었고 유럽사회포럼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와 전쟁이라는 주제를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유럽의 의회 쟁점들에 협조하게 초점을 맞추는 데 반대했다. 오히려 유럽사회포럼이 세계화와 전쟁이라는 활동가들의 관심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계사회포럼이 나에게 준 영감

케니 벨

영국 공공부문 일반노조(Unison) 뉴캐슬 지부

올해 초 포르투알레그레 세계사회포럼에서는 7만 명이 모여서 5일 동안 토론과 논쟁을 하며 서로 배웠다. 온갖 부류의 사람들, 즉 브라질의 무토지 노동자, 한국의 노동조합 활동가, 남아공 소웨토에서 온 지역 활동가 등이 한데 모였다. 무려 4천 개의 조직들이 참여했다.

모든 사람들은 또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고 믿었다. 그것은 성장하고 있는 세계적인 운동의 진정한 축제였다. 말 그대로 수백 개의 워크숍, 회의, 세미나가 열렸다.

모든 토론의 핵심에는 민주주의의 문제가 있었다. 공공 서비스를 민주적으로 만들고 민주적인 운동을 건설하는 방식을 토론했다. 행사전체가 참여 민주주의의 거대한 실험이었다. 그 분위기는 마치 살아있는 사회주의 같았다.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개방적이고 긍정적이었으며, 정보와 경험을 동지처럼 서로 공유했다. 그다지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았다. 격렬한 토론과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포르투알레그레는 아주 고무적이었다.

나는 우리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특히 사유화 같은 문제들이 라틴 아메리카나 아시아 전역의 민중이 직면한 것과 똑같은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전 세계에는 하나의 원인에서 비롯한 같은 문제들이 있다. 세계사회포럼은 우리가 세계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과 사유화를 물리치는 것이 단지 뉴캐슬이나 영국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었다.

초국적기업들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각국 정부는 그런 기업들과 공모하고 있다. 그러나 포르투알레그레는 이에 맞서 세계적 운동이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 주었다.

나는 라틴 아메리카와 아프리카 민중이 대륙 전체에서 조직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나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나에게 왜 유럽에서는 조직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유럽은 세계적 의제를 좌우하는 주역이고, 유럽연합의 이런저런 행위는 소웨토와 리오에 사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나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정책들에 반대하는 운동을 국내에서든 유럽 전체에서든 조직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포르투알레그레에 참가한 영국 대표단은 매우 소수였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대표단도 소규모이긴 했지만 영국에서 온 사람들은 정말 한줌에 불과했다. 바로 그 때문에 나는 유럽사회포럼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포르투알레그레에서 참신한 생각을 가지고 돌아왔다. 오늘날 뉴캐슬에서 우리는 공공 서비스를 사유화하는 세계무역기구(WTO)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같은 것들을 훨씬 더 잘 안다. 이탈리아에서는 작년 제노바 시위에서 비롯한 거대한 사회 운동이 계속 성장해, 총파업과 3백만 명의 거리 시위로 이어졌다. 바로 이것이 반자본주의 운동의 잠재력이다.

사회 포럼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투쟁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것 이상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를 행하고 건설할 수 있는 기회다.

우리는 사회 운동을 인정하고 유럽사회포럼을 건설하는 데 동의했다. 우리는 국제적인 관점을 발전시키고 유럽사회포럼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을 돕는 국제위원회를 처음으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회의들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꼭 여덟 달 전의 내 모습이다. 나는 그 때 이렇게 생각했다. “좋은 생각이긴 하지만, 그게 정말로 중요할까?” 세계사회포럼에 갔던 일은 그런 생각이 정말 중요하고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나는 50대다. 그러나 지금 이 시기가 1960년대의 반전 운동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한다. 젊은이들을 끌어들이고 노동조합주의와 반자본주의 사이의 연관을 건설할 수 있는 진정한 기회다. 우리는 이 기회를 날려버릴 수 없다. 우리는 우리 노조에서 지역의 투쟁을 건설하는 것과 따로 유럽사회포럼을 건설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 우리는 저들이 여기서 추진하려 하는 사유화의 물결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조직하고 그것을 국제적 전망이나 유럽사회포럼과 연결시켜야 한다. 



2003년 세계사회포럼

세계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전 세계 운동의 거대한 집결

2003. 1.23~28 브라질 포르투알레그레

www.foursocialmundial.org.br

지금부터 참가를 준비하십시오

스페인을 마비시킨 1천만 명의 파업

외신에서

6월 20일 유럽연합(EU) 정상회담 전날 스페인 남부 도시 세비아는 마비됐다. 노동자들의 전투적인 총파업은 주요 산업·교통 중심지를 마비시켰다. 상점, 술집, 식당도 대부분 이날 하루 문을 닫았다.

스페인 전역에서 대략 1천만 명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 2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90개 이상의 도시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날의 파업과 시위는 노동자들을 공격하는 스페인 보수 우파 정부와 유럽연합 정상회담을 모두 겨냥한 저항의 시작일 뿐이었다.

이런 공격은 유럽 전역의 노동자들에게는 낯선 일이 아니다. 이는 영국의 토니 블레어가 스페인의 호세 마리아 아스나르, 이탈리아의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등 우파 총리들과 동맹을 맺고 전 유럽에 강요한 노동시장 유연화 공격의 일부다. 스페인의 보수 우파 총리 아스나르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실업자들의 복지를 공격해 그들이 임금이 낮고 노동조건이 열악한 직업이라도 군말없이 받아들이도록 했다.

스페인 정부 각료들은 언론에 나와 총파업이 실패했다고 떠들어댔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이 끼친 충격은 모든 곳에서 확연히 드러났다. 전력 사용량은 여느 일요일 평균치 이하로 떨어졌다. 자동차 산업, 대부

분의 공공 서비스와 교통 시설들이 멈췄다.

세비아에서는 모든 가정이 시위 행진에 참여했다. 시위에 참가한 소니아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노동자들의 기본권을 박탈하려 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생물학을 가르치지만, 실업수당이나 노동조합 권리조차 없습니다.” 소니아의 어머니 카르멘은 유럽의 정치인들과 정상회담을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나 인권이 아닌 자본의 권리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위대는 붉은 깃발을 흔들거나 손수 만든 작업장 배너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쳤다. 그 분위기는 전통적인 노동조합 시위보다는 축제에 가까웠다.

노동조합들은 바르셀로나에서 60만 명이 행진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노동자 운동을 무시하고 싶은 스페인 정부는 단지 1만 5천 명만이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지역 경찰조차 행진 규모가 대략 50만 명이었다고 시인했는데도 말이다! 노동조합들은 세비아에서 10만 명이 행진했다고 발표했지만, 거짓말쟁이 정부는 시위대가 고작 9천 명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스페인 정부는 노동자 투쟁을 무시하려 들지만 파업 대열과 행진에서 드러난 노동자들의 전투성과 분노는 아스나르를 꺾을 수 있는 힘과 기세를 보여 주었다.

유연노동

이번 총파업의 핵심 현안이었던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난민에 대한 공격과 함께 정상회담의 핵심 쟁점이었다. 이번 총파업을 촉발한 것은 아스나르 정부의 법령이었다. 그 법령은 거주지에서 20마일 이내에 일자리가 있을 경우 실업자는 임금이나 노동조건이 아무리 나빠도 그 일자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렇지 않으면 실업수당을 박탈한다.

또, 일년에 3개월밖에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부 지역 농업 노동자 수십만 명의 수당도 폐지됐다. 이 때문에 농업 노동자들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백

마일 떨어진 북부 지역으로 이주해야만 한다.

스페인 노조 지도자들이 특별히 전투적인 것은 아니다. 최근까지도 그들은 “사회적 협력” 따위의 얘기를 일삼았다.스페인의 양대 노총 중 하나인 노동자위원회(CCOO)는 몇 년간 “온건” 파가 이끌었다. 그리고 또 다른 주요 노총인 노동자총연맹(UGT)은 훨씬 더 “온건”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스나르가 노동자들의 권리를 공격하면서 “싫으면 관둬” 식의 태도를 취하자 노조 지도자들도 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 안 됐다.스페인의 공식 노동조합원은 소수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 파업에는 80에서 85퍼센트의 노동자들이 참가했다.아스나르의 강경노선 때문에 노조 지도자들은 매우 전투적인 발언을 해야 했다.

CCOO 지도자는 시위대에게 오늘은 “노동계급에게 역사적인 날”이며, 노동조합이 없으면 스페인은 움직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겠다고 말했다. 아스나르는 이제 노조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넣을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아스나르에게 굴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번 파업 과정에서 모든 종류의 노동자들 — 공기업 노동자와 사기업 노동자, 생산직과 화이트칼라, 여성과 남성 — 사이에 거대한 연대 의식이 생겨났다. 27년 전 프랑코 장군의 파시스트 정권을 끝장낸 투쟁을 기억하는 50대 사람들이 10대 노동자들과 함께 싸웠다.

자본주의 반대, 반대, 반대

6월 22일 세비아에서는 대규모 반자본주의 시위가 벌어졌다. 대부분 스페인 남부에서 모여든 10만이 훨씬 넘는 시위대가 세비아를 가득 메웠다. 경찰은 행진을 방해하기 위해 기차역을 봉쇄하고 버스를 멈추고 포르투갈 인근 국경을 폐쇄했다.

그러나 시위대들은 경찰과 십씨 38도의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시위를 벌였다. 분위기는 매우 전투적이었다.이틀 전의 총파업과 노동조합 시위 때의 분위기가 반복됐다. 행진은 안달루시아 사회 포럼이 조직한 것이었다. 이 포럼은 두 개의 공식 배너를 들고 나왔다. 하나는 “자본과 전쟁의 유럽에 반대한다”였고 다른 하나는 “불법 인간 따위는 없다”였다.

시위대가 제기한 쟁점들은 환경 파괴, 팔레스타인 연대, 여성의 권리, 사유화 반대, 난민과 이주민에 대한 연대 등 아주 다양했다. 대열을 따라 굴러다닌 지구 모양의 큰 풍선에는 “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슬로건이 씌어 있었다.

모든 시위대는 아스나르의 정책들에 반대했을 뿐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에도 반대했다. “자본주의 반대, 반대, 반대”라는 구호가 반복됐다. 어떤 배너에는 “제국주의는 진정한 고통의 아버지”라고 씌어 있었고 어떤 것은 “자본주의 테러리즘 반대”라고 씌어 있었다. “부시와 샤론은 살인자들! 팔레스타인 만세!”도 유명한 구호였다.

발코니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은 시위대에게 박수 갈채를 보냈고 물통을 던져주거나 호스로 물을 뿌려 시위대의 더위를 식혀 주었다.

작년 7월 제노바 G8정상회담 반대시위와 12월 아르헨티나 봉기에서 나타난 것과 똑같은 반자본주의 정신을 이번 스페인 총파업과 시위에서도 볼 수 있었다. 

잔혹한 학살

이정구

지난 6월 26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시위에 참가한 젊은이 두 명이 경찰이 쏜 총에 맞아 죽었다. 살해당한 다리오 산티안과 막시밀리아노 코스테키는 실업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를 휩쓸고 있는 거대한 경제 위기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시위대를 무자비하게 공격하던 무장 경찰 중 한 명이 막시밀리아노를 쏘았다. 동료 시위대들이 그를 철도역 근처까지 옮겼다. 쓰러져 죽어가던 막시밀리아노는 “제발 도와주세요.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경찰이 나를 쏘어요.” 하고 외쳤다.

곁에 있던 다리오가 그를 도와 진정시키고 있을 때, 경찰 책임자 알프레도 프란치오티가 이끄는 한 무리의 무장 경찰이 갑자기 철도역으로 몰려들었다. 다리오를 도망치면서 “쏘지 마세요.” 하고 외쳤다. 그런데 프란치오티가 자기 총을 꺼내더니 다리오를 총으로 쏘아 죽였다. 미쳐 날뛰는 무장 경찰은 수십 명에게 총상을 입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12월 봉기에서 경찰과 군대가 시위대 27명을 죽인 이래 가장 끔찍한 만행이었다.

살인범들은 물론 경찰 개인들이다. 하지만 그들이 저지른 살인 행위는 두알데 정부의 가혹한 긴축 정책

경찰이 실업자 시위대의 얼굴에 총을 겨누고 있다.

에 맞선 저항 운동을 분쇄하려는 체계적이고 일치된 시도의 연장선상에 있다. 이번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 정부와 언론은 경찰이 시위대에게 “강경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떠들어댔다.

정부의 핵심 각료 중 한 명인 렉하우프는 27년 전에 경찰과 군대에게 좌파 조직을 박살내라고 승인한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고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그 공격은 아르헨티나에서 ‘더러운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고 1976년 군사 쿠데타로 가는 길을 닦은

경찰이 두 명의 시위대 다리오와 막시밀리아노를 살해했다. 이 사건들은 다리오가 총에 맞은 막시밀리아노를 도와 주려 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러자 경찰은 다리오를 쏘았다. 경찰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는 두 시체를 끌고 갔다.

사건이었다. ‘더러운 전쟁’ 동안 경찰과 군대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해했다.

두알데 정부의 일부 분파는 이번 사건을 더 광범한 탄압의 빌미로 삼으려 한다. 경찰의 살인 만행이 발생하자 정부와 언론은 시위대끼리 서로 충돌해 빚어진 일이라고 둘러댔다. 아르헨티나의 주요 우익 신문 <라 나시온>은 시위대가 상점을 약탈하고 방화했다고 보도했다. 정부와 언론의 이런 태도는 모든 반정부 세력들에 대한 탄압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위를 지켜본 신문 기자와 카메라맨들의 용감한 증언 덕분에 우익 언론과 정부의 거짓말이 탄로났다. 이들은 진실을 알려 주었다. 분노한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그 다음날 1만 5천 명이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항의 시위를 벌였다. 교사와 일부 공무원들은 파업을 했다. 두알데 대통령은 이런 시위가 더 광범한 저항 운동으로 발전할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경찰이 실업자 시위대를 상대로 “광포한 사냥 파티”를 벌였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경찰서장과 부서장이 사임했다. 살인을 저지른 경찰관 두 명도 체포됐다. 하지만 손에 피를 묻힌 인물은 이 둘만이 아니다. 다리오와 막시밀리아노가 속해 있던 실업자 조직은 “정부가 이번 탄압을 사전에 준비했다. 정부는 이번 살인 만행에 정치적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시위와 살인 만행은 신규 구제금융 때문에 두알데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과 협상을 벌이던 와중에 발생했다. 지난 해 12월 위기가 폭발한 이래 IMF와 IMF를 지배하는 미국 백악관은 아르헨티나에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 이들은 이미 빈곤해질 대로 빈곤해진 아르헨티나 민중에게 더 강력한 긴축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면 구제금융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놔다.

아르헨티나의 생산은 올 1분기에만도 16퍼센트 수

축했다. 이는 주요 선진국을 강타한 불황 중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일부 노동 계급 거주 지역은 실업률이 80퍼센트를 웃돈다. 한때 “세계의 곡물 창고”로 불렸고 일인당 육류 소비량이 가장 높았던 나라에서 지금은 수백만 명이 굶주리고 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필라 지구에 한 실업자 가족을 보도했다. 방 두 칸에서 여섯 아이와 함께 사는 아돌포 알라콘 부부는 이렇게 말했다. “물론 가족이 굶주리고 있어요. 아이들은 줄곧 빵을 찾아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래서 미치겠어요. 하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가끔은 밖에 나가 강도짓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도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시내에 나가 식량을 찾아 헤매는 것뿐이죠. 살기 위해서는 쓰레기통이라도 뒤져야 해요.”

보건장관 기네스 가르시아 곤잘레스조차 두알데 정부와 IMF 같은 국제 기구가 요구하는 긴축 정책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다는 점을 시인할 정도다.

제노바

아르헨티나 경찰의 이번 살인 만행은 지난해 7월 이탈리아 제노바 시위 당시 이탈리아 경찰이 카를로 줄리아니를 살해한 사건을 떠올리게 한다. 줄리아니는 G8 정상회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젊은 실업 노동자였다. 이탈리아 경찰은 언론과 시위대들이 숙소로 사용한 학교를 급습해 그 곳에 있던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두들겨쌌다.

제노바에 이어 부에노스아이레스의 살인 만행은 반자본주의 시위에 대한 지배자들의 대응이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며 더욱 폭력적으로 변해 가고 있음을 보여 준다.

특히 아르헨티나는 지난해 12월 말 신자유주의 긴축 정책에 맞서 대통령을 며칠 만에 물러나게 만들 정도로 반자본주의 운동이 고양되고 있다. 하지만 지배자들도 이에 맞서 더욱 우경화하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전부터 군대가 나설 조짐을 보였을 정도로 지배자들의 위기감이 극에 달해 있다. 아르헨티나 지배자들은 ‘더러운 전쟁’을 다시 벌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지배자들의 시도를 좌절시키려면 광범한 대중 운동이 필요하다. 또 ‘사회주의를 위한 운동’(MAS)을 포함한 여러 좌파 조직들이 우익의 광포한 탄압에 맞서 공동 행동을 조직해야 한다.

<다함께>가 추천하는 여름 휴가 특선 비디오

존 큐 (2002) / 배틀로얄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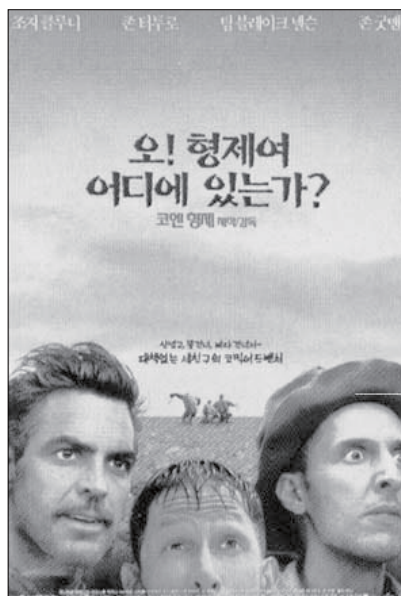
고스포드파크 (2001)

감독: 로버트 알트먼

영국의 우파 신문은 “만약 트로츠키에게 카메라가 있었다면 이 영화를 찍었을 것”이라고 평했다. 1930년대 영국의 부자들 그 하인들 사이의 가깝고도 먼 계급 분단.

오! 형제여 어디에 있는가? (2000)

감독: 조엘 코헨 주연: 조지 클루니



1930년대 미국 사회에 대한 풍자극. 호머의 <오디세이> 이야기를 변형.

프롬 헬 (2001)

감독: 알렌 휴즈, 알버트 휴즈 주연: 조니 데프
연쇄 살인에 얽힌 영국 왕실의 추악한 과거.

쉬핑뉴스 (2001) / 알리 (2001)

초콜릿 (2000) / 귀신이 온다 (2000)

빌리 엘리어트 (2000)

감독: 스티븐 달드리 주연: 제이미 벨
1984년 영국, 광부 파업과 발레를 하고픈 소년의 도전. 피켓 라인의 리얼리즘과 존엄을 잃지 않으려는 광부들의 인간성이 눈물겹다.

와이키키 브라더스 / 고양이들 부탁해 /

파이란 / 슈렉 / 물랑루즈 (2001)

천국의 아이들 (1997)

지옥의 묵시록: 리덕스 (2001)

감독: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주연: 마틴 슨

1979년 버전에 49분을 보태 새로 편집한 2001년 버전은 이야기 전개가 매끄럽고 정치적으로도 훨씬 낫다.

시리즈7 (2001)

감독: 다니엘 미나한 주연: 브룩 스미스
“경쟁자들”이라는 가상의 TV쇼 프로그램.

미국판 <배틀로얄>

트래픽 (2000) / 반칙왕 (1999)

허리케인 카터 (1999)

감독: 노란 주이슨 주연: 텐젤 워싱턴

알리가 베트남 전쟁 징병을 거부하기 1년 전인 1966년, 살인 누명을 쓰고 구속된 흑인 복서 루빈 카터의 실화. (그러나 경찰관 한 명과의 악연은 허구다.)

사이더 하우스 (1999)

감독: 라세 할스트롬 주연: 토비 맥과이어
낙태가 불법인 1940년대 미국, 낙태 시술을 하지 않는 젊은 의사가 소신을 바꾸게 되기까지의 과정. 유쾌하고 감동적임.

인생은 아름다워 (1999) / 개미 (1998)

슬레이어 (1998)

감독: 존 카펜터 주연: 제임스 우즈

영생을 얻기 위해 바티칸이 뱀파이어와 유착하다. 소설보다 정치적 과격은 덜함.

썬 레드 라인 (1998)

감독: 테렌스 맬릭 주연: 벤 채플린

1942년 남태평양 과다카날 섬 전투를 다룸. 탈영해서 원주민 부락에서 지낸 미군 병사는 “다른 세계를 봤다.”고 고백한다. 놀라운 반전 영화.

플레전트 빌 (1998)

감독: 게리 로스 주연: 토비 맥과이어

흑백과 컬러 화면을 이용, 사회 변화의 동화를 보여주는 정말 재밌는 영화.



엑 더 독 (1997) / LA. 컨피덴셜 (1997)

크루서블 (1996)

감독: 니콜라스 하이트너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1952년 미국에서 빨갱이 사냥(매카시즘)이 절정이었을 때 작가 아서 밀러가 타고난 불후의 명작.

일급살인 (1995)

감독: 마크 로코 주연: 케빈 베이컨

우체국에서 5달러를 훔쳐 “연방범죄자”가 된 헨리 영의 실화.

랜드 앤 프리덤 (1995)

감독: 켈 로치 주연: 이안 하트

손녀가 할아버지의 유품을 통해 들여다본 1936년 스페인 혁명의 현장과 열기. 스탈린주의가 혁명의 목을 조르다.

데드 맨 워킹 (1995)

감독: 팀 로빈스 주연: 수잔 서랜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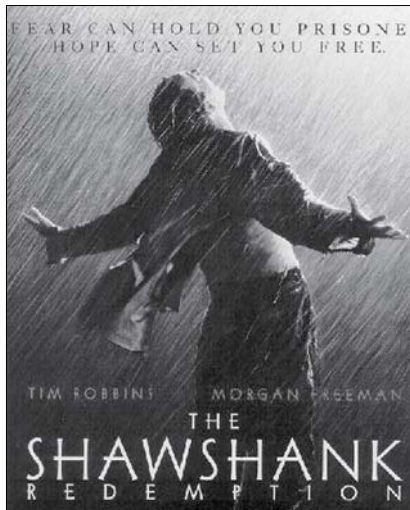
사형제도를 비판하는 영화.

중오 (1995)

감독: 마티유 카소비츠 주연: 뱅상 카셀
파리 시내에서 찍은 유대인, 흑인, 아랍인 세 청년들의 24시간.

쇼생크탈출 (1994)

감독: 프랭크 다라본트 주연: 팀 로빈스



자유와 존엄을 뜻하는 모차르트의 아리아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가 울려 퍼지는 장면과 옥상 위에서 느긋하게 맥주 두 병을 마시는 장면은 잊을 수 없는 명장면들.

일 포스티노 (1994)

감독: 마이클 레드포드 주연: 마시모 트로이시

이탈리아 어촌의 우체부와 칠레 정부에게 추방당한 사회주의자 시인 파블로 네루다 사이의 우정. 은유와 시와 인생의 아름다움.

아버지의 이름으로 (1993)

감독: 짐 웨리단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영국의 테러방지법이 아일랜드의 평범한 가정을 파괴하다.

제로니모 (1993)

감독: 윌리엄 힐 주연: 웨스 스튜디 아파치 치리카화족의 10년 항쟁 중 마지막 2년인 1885~6년. 미군의 1/4 vs 35명의 남녀 아파치 전사들.

아담스 패밀리2 (1993)

감독: 베리 소넨필드 주연: 크리스티나 리치

디즈니 세계에 대한 통쾌한 조롱

순수의 시대 (1993)

감독: 마틴 스콜세지 주연: 다니엘 데이 루이스

1870년대 뉴욕 부르주아 사교계의 은밀한 폭력과 통제.

말콤X (1992)

감독: 스파이크 리 주연: 덴젤 워싱턴

언론이 은폐한 말콤X의 진정한 유산은 국제주의와 반제국주의. 1965년 암살된 흑인 운동가 말콤X의 놀라운 생애.

비공개 (1991)

감독: 어빈 윙클러 주연: 로버트 드 니로 헐리우드에 붙어닥친 매카시즘.

하얀 외침 검은 태양 (1990)

감독: 에릭 바르비에 주연: 장 마르크 바 1931년 프랑스 북부 탄광촌. 폴란드 출신 이주 노동자들의 설움, 노조와 사회당의 기회주의, 늙은 광부의 변신.

7월 4일생 (1989)

감독: 올리버 스톤 주연: 탐 크루즈 베트남 상이 군인의 실화. 반전 영화

1969 (1988)

감독: 어니스트 톰슨 주연: 키피 서덜랜드 베트남 전쟁 징병 거부와 히피주의 등 1969년 미국 사회 묘사.

자유의 절규 (1987)

감독: 리처드 아텐보르 주연: 덴젤 워싱턴 1976년 남아공 소웨토 봉기. 시위하던 흑인 초등학생들이 학살되다.

메탈 자켓 (1987)**거미여인의 키스 (1985)**

감독: 헥터 바벤코 주연: 윌리엄 허트 아르헨티나의 감옥에서 정치수와 동성애자가 서로를 이해하다.

실크우드 (1983)

감독: 마이크 니콜스 주연: 매릴 스트립 핵발전소 노동자의 투쟁과 의문의 죽음. 영화 개봉 후 결국 법정에서 회사가 암살했음이 밝혀졌다.

의문의 실종 (1982)

감독: 코스타 가브라스 주연: 잭 레몬 칠레 혁명을 짓밟은 1973년 피노체트 쿠데타가 미국의 합작품임을 보여 준다.

나라야마부시코 (1982)**레즈 (1981)**

감독: 워렌 비티 주연: 워렌 비티 《세계를 뒤흔든 10일》의 저자이자 미국 공산당을 창당한 존 리드의 생애.

1900년 (1976)

감독: 베르나르도 베르톨루치 주연: 로버트 드 니로

이탈리아 북부 사회주의 운동과 파시즘, 이탈리아 공산당의 변천사. 우리 나라에는 4시간 5분 버전만 출시됨(녹음 불량).

프론트 (1976)

감독: 마틴 리트 주연: 우디 알렌

1950년대 블랙리스트에 올랐던 감독, 배우, 스태프들이 20년 뒤 의기투합해서 만든, 매카시즘을 비웃는 걸작 코미디.

작은 사랑의 멜로디 (1971)

감독: 위리스 후세인 주연: 마크 레스터 12살짜리 아이들의 결혼 소동과 감작한 반란. 비지스의 노래 3곡 수록.

작은 거인 (1970)

감독: 아서 펜 주연: 더스틴 호프만



아메리카 원주민 항쟁 사상 가장 위대한 1876년 리틀 빅혼 전투. 전쟁과 여성 차별을 모르는 사이언족의 삶을 소개하고 백인들이 신화로 만든 서부 개척 시대의 모든 표상들을 비웃는 걸작 코미디.

혹성탈출 (1968)

감독: 프랭크린 J. 샤프너 주연: 칼톤 헤스턴

팀 버튼의 리메이크 《혹성탈출》의 원작. 냉전과 핵전쟁, 제국주의에 대한 비난. (1999년 출시)

스팔타커스 (1960)

감독: 스탠리 큐브릭 주연: 커크 더글라스 마르크스가 가장 존경한 역사상의 인물 스파타커스, 그가 이끈 노예 반란군은 로마 군에 맞서 4년 동안 승승장구한다.

비디오평

<타이거랜드>를 볼 때 놓치기 아까운 것들

이 영화를 보면 베트남 전쟁 말기(대략 1969년부터) 미군 내에 만연한 환멸과 항명, 반란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타이거랜드>를 볼 때 알 수 없거나 알아차리기 어렵지만 놓치기 아까운 중요한 것들을 소개한다.

■ 영화의 배경은 1971년 미국 루이지애나의 보병훈련소다. 타이거랜드는 훈련소의 마지막 관문이다. 8주 훈련 중에서 마지막 1주 동안 타이거랜드에서 혹독한 모의 정글 훈련을 실시한다.

■ 감독은 영화를 일부러 다큐멘터리처럼 찍었다. 거친 입자의 화면이 크게 흔들린다. 자연광을 그대로 사용해 화면도 어둡다.

■ 당시 미국은 징집제였다. 조지 W 부시는 아버지 ‘뺑’으로 고향인 텍사스에서 복무했다. 사실은 그것도 1년 반이나 탈영해 있었고 제대로 남들처럼 제 때 했을 뿐이다. 이 영화에서 잘 보여주듯이 돈없고 ‘뺑’ 없는 노동계급의 자식들은 꿈쩍없이 베트남 전선으로 나갔다.

■ 영화를 보면 주인공 바즈가 읽는 책 제목이 궁금할 것이다. 달튼 트롬보의 <조니, 총을 들다>, 하워드 진이 인정한 가장 강력한 반전 소설이다. 책 내용은 이렇다. 제1차세계대전, 미군 병사 조니는 끔찍한 부상을 입어 두 팔과 두 다리, 얼굴이 없어



진다. 그러나 외부와 의사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 사람들에게 반전 메시지를 전한다. 이 책 표지는 유명하다. 승리의 ‘V’자다. 이 영화에서도 병사들이 쥐어 보이는 V자는 반전 평화를 뜻한다.

■ 중요한 대목인데 한글 자막이 부적절하다. 교관이 신병들에게 “베트남에 가면 먼저 쏘고 나중에 물어봐라. 그게 여자건 남자건 아이건 옆집 꼬마 조니건 상관할 바가 아니다”고 말하자 신병이 대답한다. “미라이 학살처럼 말입니까?” 미라이는 1968년 3월 미군이 민간인 3백여 명을 학살한 마을 이름이다.

■ 당구대 앞에서 바즈가 동료 펙스턴에게 말할 때, 베트남 징병 거부를 선동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말투와 연설을 흉내낸다. 바즈의 천적인 월슨은 남부 출신 백인 우월주의자이고 흑인 병사들은 모두 바즈를 따른다. 베트남 전쟁은 인종차별적이었

다. 미군의 13퍼센트가 흑인이었지만 최전선에는 24퍼센트가 흑인이었다.

■ 흑인 병사들이 부르는 노래의 적절한 번역은 이렇다.

“엥글 샘(미국 정부)이 날 여기에 보냈어. 찰리(베트남)를 찾아보랬지. 난 찰리(베트남)가 누군지도 몰라. 고향에는 근사한 캐딜락이 있어. 사랑하는 여자도 있어. 그런데 난 여기 혼자 있어. 정말 비참해. 난 찰리 중대(C 중대)야. 내가 죽으면 누가 날 기억해 줄까?”

<타이거랜드>는 병사들의 반란에 관한 영화는 아니다. 아직 그런 영화는 없다. 그러나 <타이거랜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내는 데 충분한 영화다. 야만에 직면한 사람들이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반란이다!

정건

뮤지컬

<레 미제라블>

“관객들의 반응도 매우 강렬했다. 많은 사람들이 공연 중에 눈물을 흘렸고, 공연에 대해서 냉담하기로 유명한 한국 관객들이 공연이 끝나자 모두 기립, 열광적인 환호를 보냈을 정도였다.” 1996년 <레 미제라블> 공연 당시 <코리아 헤럴드>의 기사다.

이례적이던 한국 관객들의 긴 기립 박수는 2002년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빅토르 위고 탄생 200주년 기념으로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를 울린 뮤지컬’ <레 미제라블> 공연이 7월 13일부터 시작됐다.

빅토르 위고는 인간의 삶이 개선되기를 희망하며 인류의 진보를 위해 싸웠고 가난한 자들의 편에 섰다. 그런 빅토르 위고가 1820~1830년대 프랑스 혁명을 배경으로 <레 미제라블> (가난한 사람들)을 썼다.



《레 미제라블》은 한국에서 《장발장》으로 알려져 권력자들의 재산을 보호하는 부르주아 도덕 관념을 위한 계몽서로 이해됐다. 2002년 한국에 상륙한, 프랑스 혁명 정신을 충실히 표현한 이 위대한 뮤지컬을 본 나는 이 나라의 천박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레 미제라블>은 그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도둑질하지 말고 착하게 살자’는 교훈을 내리는 《장발장》을 진정한 모습으로 되돌려 놓았다. (지금까지의 장발장의 내용만 생각하고 아이들과 함께 온 부모님들은 당황하지 않았을까?)

가난한 사람들(레 미제라블)은 장발장, 코제트, 판틴, 에포닌 등의 인물로 상징된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시무시한 법 집행이나 권력의 처벌이 아니라 관용·자비·교육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장발장을 변하게 한 것은 자베르가 아니라 미리엘 주교의 자비다. 위고는 미친한 신분의 코제트가 훌륭한 숙녀가 될 수 있음을 보여 주려 했다.

이것은 개인을 희생양 삼아 체제의 무기력함을 감추려는 신자유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작품에서 감동받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다.

우리를 더 흥분시키는 것은 뮤지컬의 하이라이트인 바리케이드 장면이다.

학생들은 라마르크 장군이 죽자 민중이 봉기하리라 기대하며 바리케이드를 세운다. 바리케이드 앞에서 학생들과 가난한 사



람들은 새 시대를 희망하며 혁명의 노래를 부른다.

2백여 년 전 바리케이드 앞에 선 사람들의 열망·열정이 무대 위에서 고스란히 재현돼 관객들에게 전달된다.

마리우스의 사랑과 혁명에 대한 갈등에서, 마리우스가 만류했지만 혁명에 가담하다 목숨을 잃는 에포닌의 행동에서, 탄약을 구하려다 총에 맞은 가브로쉬가 외치는 한마디에서, 동지들을 모두 잃고 혼자만 살아남은 마리우스의 비통한 노래에서...

물론 위고는 근본적 사회 변혁을 바란 사람은 아니다. 하지만 <레 미제라블>에서 볼 수 있는 젊은이들의 혁명에 대한 열정은 위고 자신의 사상 그 이상의 것을 담고 있다.

마지막 장면에서는 죽어가는 장발장, 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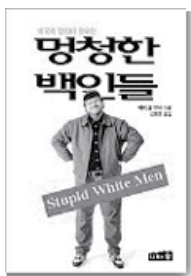
틴, 에포닌, 바리케이드에서 죽어간 모든 이들의 영혼이 합쳐지며 새 시대를 바라는 민중 혁명의 노래를 부른다. 바로 이 장면에서 기립해 정신없이 박수를 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 최고인 브로드웨이 뮤지컬 스타의 빼어난 가창력, 연기력, 뉴욕에서 직접 날라온 70톤의 생동감 있고 웅장한 무대 장치, 장엄하고 빠른 장면 전개, 때로는 감미롭게 때로는 벅찬 감동으로 관객의 가슴을 달래는 뮤지컬 음악, 이 시대 뮤지컬 대가들의 혼으로 이뤄진 감동의 무대.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어우러져 세계를 울린 세계 최고의 뮤지컬 <레 미제라블>이 탄생했다.

여지연

서평

멍청한 백인들



마이클 무어
나무와 숲

이 책은 원래 작년 10월 2일 서점에 나오기로 돼 있었다. 그러

나 9·11 이후 하퍼 콜린즈 출판사(미디어 제벌 루퍼트 머독의 회사)는 마음이 변했

다.

하퍼 콜린즈는 마이클 무어에게 부시에 대한 모든 비판을 삭제하고 제목도 바꾸라고 요구했다. 이미 인쇄한 5만 부를 버려야 하니까 10만 달러를 물어내라고도 했다.

마이클 무어는 “일언지하에 거절했다. 내 생각에 《멍청한 백인들》은 오히려 지금 더 시의적절하다.”

처음에 무어는 싸움을 망설였다. 그러나 출판사가 책을 검열하려고 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어느 도서관 직원이 끼어들면서 싸움이 확대됐다. 그는 동료 직원들과 함

께 출판사를 상대로 무어의 책을 원래대로 출판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마침내 이 캠페인이 성공해 《멍청한 백인들》은 세상의 빛을 볼 수 있었다. 이 책은 올해 2월 19일 서점에 나왔다.

인디 서점들에선 금세 동났지만 일반 서점들은 “논쟁적인” 책이라고 진열을 거부했다. 그러나 《멍청한 백인들》은 한 달 만에 초대박이 터졌다. 11개의 베스트셀러 순위에서 1위 자리들을 독차지했다. 한마디로 미국 출판계를 평정했다.

마이클 무어는 전국을 돌며 《멍청한 백

인들》의 사인회를 열었다. 샌 디에고에서는 2천 명의 독자들이 줄지어 서기도 했다. 경찰은 종료 시간을 어겼다고 사납게 굴면서 모두 체포하려고 들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폭발적인 호응 덕분에 샌 디에고 지방의회는 이 날을 “마이클 무어즈 데이”로 제정해야 했다.

마이클 무어는 1986년에 만든 다큐멘터리 <로저와 나>에서 제너럴 모터스 회장 로저 스미스의 탐욕을 비난했고 <빅 윈>에서 나이를 공격했다. TV에서도 <TV 네이션>과 <두려운 진실>을 만들어 정치인과 사장들과 용감무쌍하게 대적했다.

무어의 첫번째 책 <다운사이즈 디스>은 대량해고가 유행하던 1990년대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됐다.

마이클 무어는 항상 부자와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격문을 내걸었고, 미국 노동계급에게 한없이 잔인하기만 한 현실을 폭로하기 위해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글을 썼다.

《멍청한 백인들》은 대통령 자리를 절도한 조지 W 부시와 환경·국방·세금·복지 등에 관한 공화당의 온갖 악행들, 민주당의 무능력 등을 폭로한다.

이 책은 2000년 플로리다 대선 투표에서 보여준 공화당 책략가들의 인종차별과 더러운 술책들을 까발리며 시작한다.

조지 W 부시의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는 유권자 명단에서 전과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빼 버렸다. 그래서 31퍼센트의 흑인 남성들이 명단에서 빠졌다. 전과자와 이름, 생일, 사회보장번호가 비슷한 사람들도 모두 빠졌다. 17만 3천 명이 투표권을 빼앗겼다. 그러나 밑수 전력이 있는 주지사의 처는 투표권을 행사했다.

2만 명의 항의자들이 부시의 대통령 취임식에서 부시를 도둑이라고 비난했다. 부시는 전통적인 취임식 절차를 건너뛰고 계란과 토마토 세례를 피해 꿈무늬를 빼야 했다. 무어는 부시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서 부시를 맹렬하게 공격한다.

물론 민주당도 “멍청한 백인들”이다. 민주당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우리가 경험한 가장 공화당다운 대통령들 중의 한 명”이다. 이제 “대통령 자리에는 뺨질에 대

신 포라이”가 앉았을 뿐이다. “민주당은 공화당과 합당하라. 분리돼 있지만 같은 일(부자들을 대표하는 일)을 할 바에야, 아예 하나로 만들어 직원 인건비도 절약하고 명령하달도 잘되는 것이 낫지 않나?”

미국의 대선은 “두 악당들 중에서” 하나를 고르는 것과 같다. 그래서 무어는 진보 후보인 녹색당의 랠프 네이더를 지지했다.

그러나 무어의 지지는 불구다. 무어는 민주당의 고어 지지율이 부시의 지지율을 크게 앞서는 주에서 네이더를 찍으라고 말했다. 둘이 접전을 펼치는 주에서는 고어를 찍어도 된다고 덧붙였다.

무어는 노동자들에게 민주당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민주당을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헛된 망상도 가졌다.

인종 차별과 여성 차별에 대한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무어는 미국에서 벌어지는 흑인과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억압을 잘 폭로했다. 그러나 원인을 모든 백인과 모든 남성에게 돌리고 있다. 그래서 정치인들을 공격할 때 빛나는 특유의 재치도 이런 대목에선 좀 경박스럽다.

마이클 무어는 통쾌한 어법으로 선명한 통계를 제시하고 기막힌 예들을 뽑아냈다. 이런 아이디어와 감각은 이 책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다.

정진

프로파간다와 여론



노엄 촘스키,
데이비드 바사미언
아침 이슬

조지 W 부시
는 아프가
니스탄을 폭격하면

서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구실을 댔다. 1980년대 미국 전 대통령 레이건이 리비아를 폭격했을 때는 어떤 구실을 댔을까?

당시 미국 국무부는 리비아 폭격이 “미래의 공격에 대한 자기 방어”라고 정당화했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ILO) 규약을 얼마

나 지킬까? 놀랍게도 미국은 규약 대부분을 비준조차 하지 않았다.

제2차세계대전은 “파시즘에 대항한 민주주의의 진영”의 전쟁으로 알려졌다. 촘스키는 미국 국무부가 히틀러를 강력하게 지지했다고 폭로한다.

1937년 미국 국무부의 유럽국은 파시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으면 “불만을 품은 대중이 러시아 혁명의 사례를 따라 좌경화”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비극이 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

당시 루즈벨트 미국 대통령은 무솔리니를 “훌륭한 이탈리아 신사”라고 묘사하면서 이탈리아 파시즘을 칭찬했다.

언론은 미국 전 대통령 지미 카터를 “평화의 전도사”인 것처럼 묘사한다. 그러나 카터는 미국과 베트남이 “서로 파괴 행위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베트남에 빛이 없다”고 말했다.

촘스키는 대중 운동의 승리를 감격해 하며 이렇게 말한다.

“대중은 거대한 강적, 즉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집력이 높은 국가,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강대국들, 초국적 기업들, 국제 금융기관들 그리고 완벽한 언론 통제에 맞서 싸웠습니다.”

대중의 행동은 다자간투자협정(MAI)을 좌절시켰다. “그것은 정말 극적인 사건이며 중요한 승리입니다.”

미국에서 벌어진 대중 저항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다. “1980년대에 레이건 행정부는 엄청나게 강력한 대중 투쟁에 직면해 중앙아메리카에 직접 개입하지 못했습니다. 레이건 행정부는 케네디와 존슨이 동남아시아에서 한 일을 전혀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B-52는 과테말라를 공습하지 못했다.

촘스키는 가공할만한 불평등을 고발한다. 현재 세계 인구의 상위 1퍼센트가 대략 하위 60퍼센트의 소득과 맞먹는 소득을 얻고 있다. 미국에서 상위 1퍼센트가 전체 주식의 50퍼센트를, 상위 0.5퍼센트가 전체 주식의 40퍼센트를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메강도나 다름없습니다.”

미국 언론은 평범한 사람들의 진정한 관

심사를 외면한다. 얼마 전 미국 여자 테니스 선수 나브라틸로바가 미국 언론을 강도 높게 비난한 게 떠오른다.

나브라틸로바는 “[1975년 체코에서 미국으로 온] 나의 망명은 정의롭지 않은 체제에서 언론 자유를 억압하는 또 다른 체제로 옮겨온 바보 같은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 책은 놀랄만한 사실들로 가득차 있다. 촘스키는 미국 지배자들의 위선을 구체적 자료를 들어 통렬하게 논박한다.

또, 미국의 대외 정책뿐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 경제, 정치, 교육, 언론, 불평등, 환경 파괴 등 다양한 쟁점을 끊임없이 분석하고 주장한다. 독자들은 U2의 보컬리스트 보노가 촘스키를 왜 “불굴의 반항자”라고 했는지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촘스키에게도 약점이 있다. 그는 약의 제국 미국이 긍정적 일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잘못된 환상을 부추긴다.

촘스키는 “백악관에 압력을 가하면 동티모르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말한다. 또, 촘스키는 체계적으로 고문을 사용하는 나라에 대한 원조를 금지하는 미국 법률을 준수해야 한다고 말한다.

미국이 그런 나라들을 후원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원조는 다른 문제다. 미국이 이라크나 터키, 콜롬비아 등에 원조를 거부하는 게 누구에게 이로울까?

2000년 미국 대선에서 녹색당 후보 앨프 네이더를 분명하게 지지하지 않은 점이나, 동아시아 모델에 대해 무비판적인 점 등도 눈에 거슬린다. 몇몇 약점에도 독자들은 이 책에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강철구

새천년의 마르크스주의



토니 클리프
북마크스

1990년 구소련과 동유럽이 붕괴하자 많은 사람

들이 ‘사회주의’는 실패했고 ‘마르크스주의’는 한물갔다고 주장했다. 좌파도 마르크스주의는 붕괴한 사상이자 유행에 뒤떨어진 걸로 생각했다.

그러나 1990년 이래 제국주의 전쟁이 세 차례나(걸프 전쟁, 코소보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있었다. 빈부 격차는 날로 심해지고, 반자본주의 운동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다. 경제 위기도 계속되고 있다.

지금 마르크스의 예측이 옳았음은 그 어느 때보다 잘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는 여전히 왜곡되고 조작된다. 강단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르크스주의에서 ‘투쟁’과 ‘실천적 주장’을 잘라낸다. 조합주의자들은 ‘제국주의’와 ‘이데올로기’를 무시한다. 개량주의자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한다. 그들은 마르크스주의 정수를 외면한다.

많은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물음을 던진다. 마르크스주의가 아직도 유용한가? 21세기에는 마르크스의 전망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변혁은 어떻게 가능할까?

《새천년의 마르크스주의》는 이 모든 물음이 명쾌하게 답한다. 이 책은 마르크스주의는 지금 어느 때보다 유용하고 실천이 절실히 필요한 이유를 설명한다. 동시에 마르크스주의를 공격하고 왜곡하는 다양한 사상을 비판한다.

저자인 토니 클리프는 2000년에 사망할 때까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지도자였다. 그는 또 《소련 국가자본주의》(책갈피)를 저술한 저명한 마르크스주의자다.

《새천년의 마르크스주의》는 어려운 교의나, 철학적 용어로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하지 않는다. 국제 노동계급 투쟁의 역사를 통해 마르크스주의를 설명한다.

클리프는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과 과제를 이끌어 낸다. 클리프는 1918~1923년 독일, 1930년대 프랑스, 1936년 스페인, 1950년대 인도네시아, 1968년 프랑스, 1974~1975년 포르투갈, 1979년 이란 등에서 벌어진 투쟁 경험에서 공통된 교훈을 끌어낸다.

또 붕괴한 구소련을 ‘시체부검’해 소련

과 동유럽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국가자본주의였음을 밝힌다. 구체적 경험을 통해 각국의 ‘공산당’과 스탈린주의자들의 배신 행위를 고발한다. 이를 통해 좌파는 구소련과 동유럽의 붕괴로 혼란에 빠질게 아니라 더 자신감을 가지고 싸울 수 있다고 주장한다.

클리프는 1990년대가 느리게 돌아가는 1930년대의 필름이라고 말한다. 또 좌파는 더 많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스탈린주의가 붕괴해서 기회는 더 많아졌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실제로 반자본주의 운동의 확대, 정치 양극화, 부침을 반복하면서 가라앉고 있는 세계 경제를 통해 그것을 느낄 수 있다.

이외에도 이 책은 파시즘, 러시아 혁명, 세계 혁명 같은 굵직한 주제들을 역사적 근거를 들어 쉽고 재미있게 설명한다. 독자들은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느낌을 받을 것이다.

토니 클리프는 마르크스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자기해방 사상’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다. 또 아래로부터의 자주적 운동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변혁 조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새천년의 마르크스주의》는 진정한 마르크스주의 전통이 21세기에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것을 훌륭하게 보여 준다.

자본주의는 “변혁이나 야만이나”의 기록에 서 있다. 스탈린주의가 몰락하고, 반자본주의 운동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기회를 잡을 것인가 놓칠 것인가? 좌파는 기회를 잡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정형준

로자 룩셈부르크 평전



막스 갈로
푸른숲

막스 갈로의
이 책은 불

꽃같은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반혁명 군대 병사 룽에가 휘

두른 개머리판에 두개골이 짓이겨진, 1919년 1월 15일의 끔찍하고도 비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서문으로 시작한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1871년 폴란드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세기의 전환기에 독일 사회민주당의 지도적 인물이 되었다.

로자 룩셈부르크의 사상과 정치적 견해의 많은 부분은 오늘날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살아있을 때 반대에 부딪히거나 무시되던 로자의 사상과 정치는 중대한 사건들에서 옳았음이 입증되었다.

로자는 체제가 의회를 통해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크게 비판했다. 로자는 자신의 사상을 이렇게 훌륭히 요약했다. “정치권력 장악과 사회 혁명 대신에 그리고 그것과 대비시켜 입법 개혁이라는 방법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공통의 목표를 향한다. 평온하고 느린 길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목표를 지향하고 있는 것이다.”

로자 룩셈부르크는 자본주의가 전쟁과 파괴를 낳는다고 분석했다. 거대한 전쟁 포로 수용소, 첨단 무기, 핵폭탄의 시대가 오기 전에 이미 로자는 인류가 ‘사회주의나 야만주의나’ 사이의 선택에 직면해 있다고 경고했다.

로자가 정치적 삶의 대부분을 독일 사회민주당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막스 갈로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동요와 우경화 과정에 비중을 두어 비판적으로 다뤘다.

룩셈부르크는 독일 사회민주당 지도부가 점점 혁명적 전통에서 이탈하고 있음을 제1차세계대전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레닌보다도 먼저 알아챘다. 갈수록 보수적으로 치닫는 관료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노동자의 주도권에서 나온다는 점을 레닌이나 트로츠키보다 훨씬 먼저 이해했다.

막스 갈로는 로자 룩셈부르크의 지도 원리가 대중과 끝까지 고통을 함께 하며 대중을 도우려 한 것에 주목한다. 로자는 “온갖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자발성과 창조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했다.

또 로자는 그런 운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의식적인 지도력의 중요성을 지적했

다. 불행하게도 로자 룩셈부르크는 항상 조직의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어떤 종류의 조직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정식화하지 않았다. 이것은 로자의 주된 약점이었고 그녀는 아주 늦게서야 생각을 바꿨다.

독일 사회민주당(SPD)이 1914년 애국주의 열풍에 직면해 무너져 제1차세계대전의 대학살을 지지했을 때 로자는 반대파를 이끌었고 국제 노동계급의 단결이라는 원칙을 방어한 고립된 개인들과 작은 그룹들을 결집시켰다.

비극이게도 독일 노동자들이 전쟁에 맞서 반란을 일으켜 러시아 혁명의 모범을 따르는 듯 보였을 때 이 그룹은 조직돼 있지 않아 사태에 영향을 미칠 만큼 영향력이 있질 않았다.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로자 룩셈부르크와 볼셰비즘을 대립시킨다.

막스 갈로는 이 책에서 1905년 러시아 혁명을 바라본 로자가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아닌 제헌 의회와 모든 수준에서의 피선거권을 지지했”고 “행동 문제에서는 레닌과 볼셰비키와 가까웠지만, 권력 조직의 방법론에서는 그들과 갈라졌다. 프롤레타리아가 차르의 전제 권력을 전복시킨 후에는 일단 공화파 부르주아지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그러나 로자는 1905년 제1차 러시아 혁명이 발발했을 때 집필한 논문과 소책자들을 통해 “트로츠키와 파르부스가 개별적으로는 발전시켜 놓았으나 당시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거의 주장하지 않던 영구혁명의 개념을 발전시켰다. 텐세비키와 볼셰비키가 그들간의 깊은 균열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혁명을 부르조아적인 것으로 생각한 반면에, 로자는 러시아 혁명이 부르조아민주주의의 단계를 넘어서 발전할 것이며 노동자의 권력장악 아니면 완전한 패배 가운데 하나로 귀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토니 클리프, 《로자 룩셈부르크》).

로자 룩셈부르크는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민주주의와 대립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로자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로자는 1917년 러시아 혁명 때 볼셰비키가 제헌의회를 해산한 것에 비판했을 때조차 그녀는 소비에트 대신에 제헌의회를 주창한 것이 아니라 소비에트더하기 제헌의회를 주장했다(제헌의회를 둘러싼 자세한 논쟁은 토니 클리프의 《로자 룩셈부르크》를 보시오).

러시아 혁명을 둘러싼 몇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큰 그림에서 로자 룩셈부르크는 “어느 곳에서든 미래는 ‘볼셰비즘’의 것”이라고 썼다.

막스 갈로는 이 책의 3분의 1 이상을 로자가 가족과 동료들에게 보낸 수많은 편지들을 인용해 개인적 삶과 심리 변화 추적에 치중했다. 가족에 대한 사랑과 갈등, 연애, 자연과 예술과 문학에 대한 기쁨 넘치는 사랑 등...

물론 혁명가의 ‘뒷얘기’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대목이 쓸쓸한 재미를 줄지 모른다. 그렇지만 손에 땀을 쥐는 중요한 역사적 순간마다 그런 대목이 지면을 더 많이 차지해 맥이 빠진다. 무엇보다 로자는 혁명가가 아닌가?

만약 당신이 혁명이 로자 룩셈부르크의 정치적 삶과 교훈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이 책보다는 파울 프릴리히의 《로자 룩셈부르크 생애와 사상》(책갈피)이나 토니 클리프가 쓴 《로자 룩셈부르크》(책갈피)를 읽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이다.

조승희

중국의 몰락



고든 G. 창
뜨인돌

중국은 몇 년 동안 심각하게

내수가 침체했는데도

선진국들의 평균 경제 성장율을 훨씬 웃도는 수치의 성장율을 기록해 왔다.

그런데 《중국의 몰락》에서 저자가 머지않아 중국이 몰락할 거라니 저질로 머리가 가우뚱해진다.

고든 G. 창은 '사회주의'라는 낡은 이데올로기를 고수하는 중국 정치 체제의 경직성이 중국을 몰락으로 이끌 것이라고 주장한다.

창은 이러한 정치 체제를 '마오시스템'이라 부른다. 과거 마오쩌둥이 지배한 시대처럼 경제를 국가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다.

창은 "당과 장은 1978년 이후로 수많은 변화를 주도했지만 공산당과 중앙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거의 변한 것이 없다. 중국 정부는 아직도 마오가 개발한 소련식 모델의 엄청난 계획경제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고든 G. 창은 '마오시스템'이 적자 덩어리인 국유기업 개혁과 IT산업 육성, 외자유치에 어떤 장애물인지 잘 보여 준다. 시장주의자인 창이 보기에, 중국이 살아남으려면 산업의 전 부문을 더욱 더 철저히 시장에 개방해야 한다.

국가가 경제에서 당장 손을 떼고 국유기업을 완전 사유화해 경제를 시장의 자율정돈에 맡겨야 한다. 공산당 지도자들이 강조하는 기술 혁신이라는 구호 역시 현재의 경제 체질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공허한 메아리로 끝날 수밖에 없다.

창은 "공산당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들어가고자 하는 세상에서 사업은 수익 창출과 주주 가치에 의해 평가되며 기술은 스프의 한 가지 재료에 불과함을 알아야만 한다"고 충고한다.

현재의 '마오시스템'에서 더 진전된 시장 개혁은 불가능한데, 그 이유는 당 관료들이 낡은 이념의 노예들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현재 중국 정부의 시장 개혁은 '일시적인 전술'이라고 주장한다. "베이징의 지도자들이 과감하게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튼튼하게 만들기 위한 것" 이란다.

과연 중국 정부의 시장 개혁이 중국을 사회주의 중급 단계, 고급 단계로 도약시키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일까?

중국 정부가 '사회주의'를 얘기하는 것은 순전한 정치적 수사일 뿐이다. 개혁 전이나 개혁 후 모든 시기를 통털어서 말이

다. 개혁을 시작한 이래 공산당 관료들은 입으로는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열심히 시장 개혁을 추진해 왔고 앞으로 더욱 확대하려 한다.

중국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에서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꾸준히 늘려 왔다. 과거에 비해 국유기업 비중을 계속 줄이고 있을 뿐 아니라 과거처럼 국가가 모든 것을 총괄하는 국유기업 경영 방식에서 벗어나려 한다.

'정통파' 장쩌민은 중국이 제3세계 자격으로라도 WTO에 가입한 것을 매우 기뻐했다. 저자가 비판하는 '마오시스템'안의 '경직된' 공산당 관료들은 이제 사적 자본가들의 공산당 입당도 환영한다.

이것은 덩샤오핑이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고 말한 이래 가장 노골적인 태도다. 그런데도 중국 정부는 여전히 '사회주의'라는 수사를 통해 체제를 유지하려 한다.

시장개혁은 일당지배체제를 의도치 않은 방향에서 공격받게 할 수 있다. 1989년 천안문 항쟁은 급진 개혁과 후야오방의 죽음을 추모하는 것에서 시작했다.

덩샤오핑은 시위자들을 '전적으로 서구에 종속된 부르주아 공화국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의 전복을 꾀한 사회의 쓰레기'라고 비난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시위가 유행 진압됨으로써 지배자들은 정치적 위기를 한고비 넘겼다.

경제 부문을 자유화하는 것은 중국과 같은 일당 독재 체제에서 정치 부문의 자유화 요구를 자극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정부는 '사회주의' 수사를 동원해 사회를 계속 통제하는 것이다. 또 저항 분위기를 잠재우기 위해 체계적 억압에 의존한다.

고든 G. 창 주장대로 당 관료들은 대형 국유기업을 사유화하는 데에는 여전히 보수적이다. 중국 정부는 시장 개혁 과정에서 중·소형 국유기업을 매각하거나 사유화했지만 1천여 개의 대형 국유기업 사유화는 유보하고 있다. 농업 부문이나 대외 개방에서 급진적 개혁이 이뤄진 반면 소유제 개혁은 아직 굼뜨고 점진적이다.

이것은 고든 G. 창이 주장하듯 단순히 이데올로기 문제 때문만은 아니다. 급격한 사유화는 권력 기반 자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대형 국유기업이 시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연쇄로 무너져 내릴 경우 막대한 자금을 쏟아 부은 은행도 함께 무너져 금융위기의 대혼란이 벌어질 수 있다.

게다가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상태에서 대형 국유기업에서 실업자들이 대거 쏟아져 나오면 사회 체제가 더한층 불안정해질 수 있다.

대형 국유기업과 연계돼 있는 당 관료들의 이해관계도 사유화를 더디게 하는 요인이다. 개혁 과정에 수반될 '권력과 이익의 재조정'은 일부 관료들의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국이 추진하는 시장 개혁과, 그로 인한 정치 체제의 위기, 그 둘 사이의 긴장 관계를 고민해 볼 수 있게 한다.

개혁을 시작한 이래 중국 정부는 '중국적 특색의 사회주의', '사회주의 초급 단계', '사회주의 시장경제'란 애매한 체제 규정을 통해 스스로 자신들의 모순된 처지를 드러내 왔다.

시장 개혁이 지배 체제의 위기를 낳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그러나 이것이 당장 중국 공산당 일당체제의 몰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역사적으로 결정적인 사건엔 수많은 변수가 끼어들기 마련이다.

한은솔



미국은 왜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는가?
미국은 중동에 어떤 이해 관계를 갖고 있는가? 아랍 민중은 어떻게 미국에 저항했는가?

이 소책자는 독자들의 궁금증을 풀어 줄 것이다.

값 1,000 원



14호(2002.7)

- 지방 선거 결과
- 선거 지원 활동 경험
- 서총련 투표 전술 비판
- 한총련을 합법화하라
- 북한 난민의 환영받지 못한 탈출
-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부패하기는 마찬가지
- 박근혜 활용론 비판
- 이주 노동자는 노예가 아니다
- 조희연 교수의 전지문 구속 항의서
- 전지문 석방 연대 행동
- 국민적 단결 신화
- 노동자들의 의식은 어떻게 바뀌는가
- 미국이 국내에서 벌이는 전쟁
- 유럽은 우경화하고 있는가?
- 에이즈, 세계화, 자본주의
- 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15주년
- 스티븐 제이 굴드를 기리며
- 인도-파키스탄 핵전쟁 위기
- 팔레스타인 두 국가 방안의 한계
- 반란의 아르헨티나



13호(2002.6)

- 프랑스 대선
- 반파시즘 투쟁
- 트로츠키는 누구였는가
- 5·3 동의대 사건
- 민주화 운동 인정
- 전교조 민주화 운동 인정
- 6월 항쟁 15주년
- 노무현과 좌파
- '노무현 현상' 토론

- 회를 다녀와서
- 김대중과 노무현의 부패관
- 정치인들이 부패한 까닭
- 범죄는 왜 발생하는가
- 월드컵 제대로 보기
- [운동안의 논쟁]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라
- 네덜란드-죽은 당수가 부활했다?
- 충동을 휩쓰는 저항 불결
- 1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은 고이즈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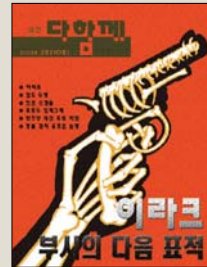
12호(2002.5)

- 발전 파업의 교훈
- 진중권 비판
- 에이즈
- 베네수엘라
- 이탈리아 총파업
- 중국 노동자 투쟁
- 프랑스 대선



11호(2002.4)

- 손석춘 강연
- 누가 핵 미치광이인가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인가
- 철도 파업 평가
- 이스라엘의 테러
- 인도 '종교 분쟁'
- 이탈리아 노동자 투쟁



10호(2002. 3)

- 미국 제국주의의 모순
- 피에르 부르디외 조사
- 과학과 이데올로기
- 세계화와 여성 노동자
- 포르투 알레그레
- 엔론 스캔들
- 아르헨티나 노동자 저항
- 빅토르 위고



9호(2002. 2)

- 아르헨티나
- 격변의 라틴 아메리카
- 인도-파키스탄 전쟁
- 월드컵과 정치
- 권영길의 2002년 선거 전망
- 주5일 근무제
- 정성진의 경제 전망



8호(2002. 1)

- 끝없는 전쟁?
- 아프가니스탄 여성
- 보신탕 논란
- 인간 배아 복제
- 백색 공포?
- 스포츠
- 강준만 논쟁
- 브뤼셀 EU 정상회담



7호(2001. 12)

- 하워드 진/나오미 클라
- 인/에드워드 사이드
- 팔레스타인 민중 봉기
- 오늘의 제국주의와 전쟁
- 노무현 비판
- 수전 조지의 WTO 비판
- 마약 합법화
- 인력사 · 낙태 · 대리모



6호(2001. 11)

- 새뮤얼 헌팅턴의 문명충돌론 비판
- 홍근수/이마드 자우하르/영국 과학자들의 반전 성명서
- 유엔
- 이슬람
- 유대 시오니즘의 본질



5호(2001. 10)

- 전쟁은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은 말한다
- 조지 W 부시의 사악한 전쟁
- 김수행 교수 강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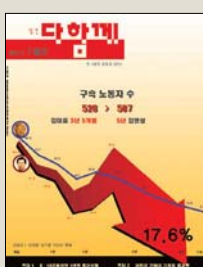
4호(2001. 9)

- 제노바 G8회담 반대 시위
- 가톨릭 급진주의는 죽었는가?
- 소련 붕괴 10주년
- 메가워드의 불안한 앞날



3호(2001. 8)

- 김대중 언론 개혁의 모순
- 민주노총 상반기 파업 평가
- 지구 온난화와 자본주의
- '8·15 민족공동행사'를 비판한다
- 매매춘 합법화



2호(2001. 7)

- 서울대 개혁 논란
- 안락사 합법화 논쟁
- 6·15선언 1년을 돌아보며
- 새남당 간척 사업이 가져올 고통들
- 민족과 계급



1호(2001. 5)

- 미친 스타 워즈 계획
- 부시의 환경 파괴
- 미스코리아 축전
- 경찰의 폭력
- 일본



〈귀환담〉에서는 기업과 고용현황을 이용해 반값 지원이며, 구두로 표명한 상 비환원됩니다.